



眞理正義
自我進就

濟大新 聞

발행인 金澤玉 주 간 鄭大然
편집국장 高榮哲 편집장 任尚紫
발행소: 제주대학교 신문사
(890-756) 제주시 아라동 산1번지
전화: (직) 54-2278·2279
인쇄: 한라일보사

제430호 (주간)

[1954년 5월 27일 창간 등록번호 라 2497호]
[1986년 4월 28일 제3종 우편물(대)인사]

The Che-dai Shinmoon

1991년 10월 23일 수요일

1

‘기금조성운동’에 동참 약속

김총장 방일중 본도출신 교포인사들 만나 학약받아
학내에서도 보직교수·여직원회등서 참여시작

본교의 연구·교육기능을 개선하고 대학발전의 새로운 기틀을 다지기 위한 대학발전기금조성운동이 전 제대인의 다각적인 노력으로 활기를 띠고 있다.

김영옥총장은 기금조성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난 9월26일부터 7일간 부만근 기획실장과 김수중 사법대학장, 오현도(농학과)교수등과 함께 일본에 건너가 동경에 거주하고 있는 “재일제주개발협회” 임원 15명을 대상으로 “제주대학교 발전기금조성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또한 대판에서는 두차례에 걸쳐 “제주대학교 발전기금조성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는데 첫째날에는 제주도 출신들로 구성된 “제주도민회” “제주도친목회” “제주경제인협회” “제주청년회” 등 4개 단체의 임원 16명을 대상으로, 둘째날에는 제주도 출신 소장계인 9명을 대상으로 “제주대학교 발전기금조성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이 결과 각 단체의 임원을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발전

후원회”를 결성하게 되며 이 후원회를 주축으로 하여 재일제주인들에게 우리학교 발전기금조성운동에 대해 홍보하고 기금운동을 전개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옥총장은 또 제주재일청년회 창립25주년 기념행사에 참석, 매년 우리학교 도서관에 책을 기증하는 등 제주재일청년회의 도움에 대하여 감사패를 전달하고 우리학교 발전상황에 대해 세세한 설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김총장의 방일로 인해 결성된 “제주대학교 발전기금후원회”에 대해 부만근 기획실장은 “이 후원회는 앞으로 기획실과의 긴밀한 유대관계에 대학발전기금운동에 대한 상호간의 연락을 적극적으로 취하면서 이를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라고 밝히며 그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김영옥총장일행은 나가사키대학을 방문, 내년 4월 23일과 24일 양일간 “하이에크 심포지움”을 나가사키대학에서 개최하기로 확정

짓고 이후의 학술교류에 대해서는 로테이션 형식으로 개최할 것과 상호간의 교류에 대해서는 일률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 사안에 따라 합의하기로 결정을 보았다.

한편 학내에서도 그동안의 친목분위기를 벗어나 지난 10월 1일 이후부터는 발전기금조성운동에 참여하는 교직원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전학생처장·교무처장과 학장들을 비롯 일부 부속기관 보직교수들이 참여하고있고 법정부속 여직원에서도 나름의 열의를 보이고 있다.

잠시 침체된 듯 보이던 발전기금조성운동이 활기를 띠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학교에 몸담고 있는 모든 교직원들은 사소한 감정을 앞세워 본래의 취지를 왜곡시켜서 하는 안되었다. 즉 행정책임자와 ‘노선’이 다르니까 또는 ‘측근’이 아니니까 발전기금조성운동에 참여를 못하겠다는지 또는 교수들에게 돌아갈 재원을 왜 우리 행정직원들이 내야하는가. 등등의 간성적·이기적 생각에서 우리모두가 탈피, 발전기금조성 운동에 우리모두 참여하는 것만이 제주의 지역사



◇올봄발령 교사로 부근에 유림창이 개진채 약15일전부터 세워져 있는 차량(차량번호 제주74 4938). 주인도 학교당국도 차를 생각한 보지못하고 방치된 오가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김미진기자]

회발전이 기여하고 우리들이 소속하고 있는 제대의 발전을 위한 일임을 자각해야 한다.

거듭해 말하지만 학·처장 등 보직교수들부터 발전기금

10·11월중 학사일정

△석사학위취구는문(1차)=23일~26일 △박사학위취구는문(1차)=30일~11월2일 △수제야라체전=24일~26일 △수업주수 2/3전=11월2일 △석사학위취구는문 본심사=11월4일~9일 △박사학위취구는문 본심사=11월11일~16일

여성학 강좌 개최

‘대졸여성취업’주제로

제6회 여성학강좌가 총여학생회 주최(회장 김보선 국교4)로 ‘대졸여성의 취업현황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지난 10월15일 오후3시 2중강당에서 있었다.

강연에 나선 김영옥총장은 “현대산업사회가 다변화되고 고도의 지식력을 요구함에 따라 여성인력은 필요불가결하다”고 지적한후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은 전문직보다 단순노동직에 취업이 한정되어 있는데, 이는 남녀에 대한 전통적 차별의식과 추천과정에서의 남학생 우선순위, 기업에서의 취업차별 등에 근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영옥총장은 이를위해 남녀고용평등의 준수, 교육과 타인시설 확충, 직업지도와 교육훈련 강화, 취업정보에 민첩한 자세, 새로운 직종에 대한 다각도의 능력배양등의 대책을 강력히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대학발전기금 기탁현황

(접수순)		8월20일~10월22일 현재	
소속 및 직위	성명	기탁액	비고
제주대학교 총장	김영옥	*151만7천원	
수업과 기능직	오정용	*151만1천원	
사법대학 교수	현용준	*1백만원	전교무처장
농과대학 교수	양기춘	*1백만원	전학생처장
사법대학 부교수	안창범	*251만원	
제주권리법률회	백창호	*1억원	백창호출판사출판기금
법정부속 학장	서경립	*551만원	
전자계산소장	강영주	*551만원	
공공실험실소장	고정삼	*551만원	
후생과기생외직원	이광호	*151만원	
법정부속여직원회	이영숙외8명	*151만원	
계	20명		
누계	45명	221,162,750	

(*표는 현금기탁자표시임)

△접수장소: 본교 발전기금조성추진위원회
△접수방법: 직접기탁 또는 우편면 전화 접수가능
△기탁액: 제한없음
△기탁 문의사항은 전화 54-2140, 2001, 2006으로 하시면 됩니다.

실험기자재 40여점 수리

산업대 교육기자재 관리소에 의뢰

학교 당국에서는 지난 10월15일 서울산업대학 교육기자재 관리소에 의뢰, 우리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실험실습기자재 가운데 고장이나 노후화된 실험실습기자재 40여점을 수리하기 위해 실험실습교육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다.

이날 수리를 받은 실험실습기자재는 식물생장상 3대와 컴퓨터, 실험기, 분광광도계 등 총 29종 40여점의 정밀기기로 농과대 30여점, 해양

과학대 6점, 자연과학대 5점, 공과대 7점 등이다.

학교당국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기자재 수리비로 연간 2~3백만원정도 책정되는 예산으로는 정밀기계 1~2대 정도 밖에 수리할 수 없는 우리학교 여건에서 이같은 무상방문수리지원은 엄청난 수리비 절감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실험실습기자재는 외국차관으로 구입한 기자재 4백여점(3백여종)을 포함 총 3천7백여점(2천5백여종)이 되는데 이중 1년에 약 1백여점 가량이 사용 빈도수가 많아 수리를 요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우리학교에 와서 실험실습기자재를 수리했던 서울산업대학 교육기자재관리소 심보라(정밀공학현미경 기술담당)씨는 “교육부 요청에 의해 지난 83년부터 한해 두차례씩 지방대학을 방문해 실험실습기자재 등을 무상수리하고 있다”면서 “이런 기회를 통해 외화절약 및 면화분위기가 조성에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교무·학생처장 경질

신임 교무처장에 高南旭 교수
신임 학생처장에 文斗吉 교수



학교당국은 지난 10월4일자로 임기만료된 교무·학생처장에 대한 보직인사를 단행, 玄容駿교무처장 후임에 高南旭(경제학과)교수를, 梁奇奎학생처장 후임에 文斗吉(원예학과)교수를 각각 임명했다.

두 신임 처장의 약력을 보면 다음과 같다.

▲교남옥 교무처장<사진>

△38년 제주 출생 △62년 우리학교 상학과 졸 △69년, 83년, 중앙대학교대학원에서 경제학 석·박사학위 취득 △76년 관개개발연구소장 △85

년 출판부장 △85년 경제학과장 △86년 학생처장 △89년 지역발전연구소장 △91년 대학원 경제학과 주임교수 △91년 평의원회 의장

▲문두길 학생처장<사진>

△43년 제주 출생 △66년 우리학교 농학과 졸 △72년 고려대학교대학원 농학석사학위 취득 △87년 서울대학교대학원 농학박사학위 취득 △77년 원예학과장 △79년 감물원장 △80년 농학부교과과장 △87년 학생생활연구소장 △87년 아열대농업연구소장

대기업사원 모집원서 배부

장학담당관실서

장학담당관실(실장 문전탁)에서는 지난 9월30일부터 한국수출입은행을 시작으로 92년도 신입사원모집원서를 비치, 무료로 학우들에게 배부해주고 있다.

10월21일 현재 장학담당관실에서 비치하고 있는 92년도 신입사원모집원서는 삼성그룹 40부, 대성그룹 60부, 쌍용그룹 1백7부, 현대그룹 1백38부, 동양그룹 20부, 한국수출입은행 10부, 포항제철 1백부, 대림그룹 1백16부, 한일그룹 3부, 증권감독원 2부, 고려시멘트 7부, 롯데그룹 5부, 럭키그룹 15부, 기아산업 21부, 효성그룹 25부, 대신증권 15부, 대한생명보험 65부, 국민은행 40부, 하나은행 10부, 중소기업은행 48부, 신한은행 1부(각 지점에서 배부), 한국화약 2백부,

종립산업 20부, 유한양행 30부, 국민투자금융 5부, 한국컴퓨터 3부, 한국교육감독원 11부, 한국외환은행 18부, 중부생명보험 5부, 광주생명보험 6부, 해태그룹 50부, 무역진흥공사 30부, 대우제약 5부, 고려시멘트 30부 등이 있다.

이미 장학담당관실에서는 본교와 도서관 등에 원서비치현황판을 설치해 학우들에게 홍보를 하는 한편 도내기업들을 찾아 다니며 취업홍보를 나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학담당관실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취업을 앞둔 학생들이 원서비치현황판을 찾아다니며 취업홍보를 받고 있다”면서 “원만한 대기업체의 사원모집원서가 비치되어 있으니 신입사원모집원서가 필요한 학생들은 언제든지 장학담당관실로 문의해 주길 당부했다.

돌하르방

몇몇차 못한 행위

어떤 일이나 그 속에는 일정한 원리가 있게 마련이고 그것을 실행하는 데에는 일정한 방법이 있게 마련이다. 즉 바른 원리와 합당한 방법을 안다는 것은 그 일에 관한 법칙을 찾아 냈다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이 다.

이러한 원론적인 얘기가 지금은 어디로 갔을지? 하고 의문을 제기하게 된 사건이 지난 10월7일에 있었다. 그것은 바로 “새물결추진위원회” 대자보 소동이었다.

그 주요내용은 “우리를 열받게 하는 일들”이라고 시작되어 ‘특별법’이 있었더라면 그 장소에 나타나 공개연단에 올라가서 담당한 귀절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비판없는 비난이라고 치부해버리는 것은 아니다. 일부에서는 근거없는 얘기라고 등한시 하기에는

NL과 PD로 나뉘어 자행하는 작태는 과연 무엇을 뜻하는 행동인가? ‘현집행부’는 이제껏 특별법을 외치면서 지난 9월17일 별도민권기대회를 끝으로 특별법에 대한 움직임이 없다’ ‘해대 본과방에서의 무분별한 행동을 민중투사라고 해서 행하여 질 수 있는가? ‘학생운동을 비판하고 집행부를 비판한다는 이유로 1개 동아리를 마음대로 해체시킬 수 있는가?’ 등이 있다.

과연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조차 의심을 불러 일으키는 사실을 그들은 함부로 때려부었다. 그들은 또 해대본과에서 진실을 규명하자며 공개연단을 요청했지만 그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내용을 대자보에 게재할 용기가 있고, 그러한 사실이 근거가 있다면 몇몇행에 대한 비판과 비난을 할 용기가 있었다면 그 장소에 나타나 공개연단에 올라가서 담당한 귀절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비판없는 비난이라고 치부해버리는 것은 아니다. 일부에서는 근거없는 얘기라고 등한시 하기에는

특별법 부분에서 현총학생회의 대응 자세에 대한 비판이 어느정도 공감이가 있다고 한다.

또한 NL과 PD에 대한 부분도 어느정도는 이해가 된다는 학우도 없지 않다.

허나 이번의 대자보 싸움은 여타학우들에게 웃음거리밖에 될 수 없었던 게 사실이다.

새물결추진위원회는 그들대로 선거전을 겨냥한 근거없는 심리전이라고 인식되기에 충분했다. 총학생회는 또 이러한 소문에 휘말리게 되게끔 일부사원들을 했던게 총학생회 위상을 색안시키는 학우들을 만든 것이다.

총학생회가 이에 대한 답변조차 없었다고 하니 학우들이 혼돈상태에 빠지기도 남음이 있었을 것이다.

어떤 일어난건에 일정한 원리가 있고 근거가 있어야 함은 당연한 사실이다.

허나 그렇지 못했기에 해프닝 아닌 해프닝이 더 심하게는 양측이 다 웃음거리밖에 되지 않았다.

다시 한번 말하건대 모든 것에 일정한 원리와 방법이 있음을 강조하고 싶다. [紫]

꿈을 펴는 젊음, 미래를 경영하는 3로

내 젊음 의지로 세계를 채우고도 남을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믿겨지지 않았다.
어떤 임무를 갖고 떠나는 것도 아니고 순수히 배움의 목적으로 이 나라를 떠나 1년 동안이나 외국에 체류한다는 사실은 나를 흥분시키기에 충분했다.
비행기표를 오를 때도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내릴 때도 그 흥분은 쉬이 가시지 않았다.
그러나 나에게 세계를 무대로 뛰는 비즈니스맨이 될 준비를 해야 할 임무가 있었고 지나가는 사람들조차 예사로이 보아 넘기지않는 나를 발견하면서 삼성인의 자력으로 이 낯선 땅을 밟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었다.
피레 - 인스티튜트 근처의 조그만 허숙방에서 나의 독일생활은 시작되었다.
보는 것, 듣는 것, 느끼는 것 모두가 새로움이었으며 내 젊음은 그 모든 새로움을 배움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비록시장이라고 불리는



중고시장에서 산 남이 쓰던 물건을 아무 거부감없이 사용하며 그런 거래를 통해 상인정신을 배우는 근면 - 직업은 그 지위의 높고 낮음을 따' 단지 자기자신이 사회에 기여하는 수단에 불과하다는 건전한 직업윤리 - 그들은 법과 철학의 나라다운 국민이었다. 독일은 소박하다. 그러나 합리적이고 보수적이지만 또한 과감하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않는 것을 더 많이 지니고 있었다. 그냥 지나쳐가는 관광객들의 눈에는 보일지않는 무형의 자산을 지니고 있는 것이었다. 나는 그것을 보았다.
지금은 한국에서 독일에 주재원으로 파견된 준비를 하고 있다. 이번에는 어떤 임무가 주어지는 독일행이 될 것이다. 벌써 마음은 비행기 트랩을 오르듯 하다. 그러나 속으로는 또 다른 나를 그려본다. 당당한 비즈니스맨으로 독일땅을 밟고 있을 나를 -

삼성은 매년 입사 3년차의 신입사원 400명씩을 선발하여 지역전문가로 양성하기 위해 1년간 세계 45개국에 독신파견하고 있으며 3년후인 94년에는 약 2,000여명의 지역전문가가 양성 양성됩니다.

91년부터 입사 3년차의 신입사원 10%를 선발하여 45개국에 1년씩 파견하여 지역전문가를 양성해가는 독신파견 지역전문가 양성제도는 업무없이 자유롭게 현지경험과 지식만을 쌓아 자연스럽게 해당지역의 전문가가 되는 제도입니다. 현지언어습득, 상관습과 문화체득, 여행 및 현지인과의 사고 등의 큰 줄기외에는 일체의 요구사항이 없으며 현지에서의 자유로운 경험을 위해 철저하게 자기의사와 계획에 따라 생활하게 됩니다.

삼성이 국제화시대를 선도할 인재들을 키우고 기술의 국제화, 제품의 국제화를 위해서도 결국 사람의 국제화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인식으로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이 제도에 젊은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도전있으시길 바랍니다.

인재와 첨단기술의



社説

공청회 다시 열어야

—대학발전계획 공청회를 보고

지난 10월18일에는 우리학교 종합발전계획(학사부)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다. 이번의 공청회는 전문위원회의 제1차 회의를 거쳐 계획이 확정되기 전의 전반적인 최종 의견수렴단이었다고 한다.

지난 8월17일 발표된 이 계획안은 애초에 기획실에서 각 단과대학별로 의견수렴을 받고나서 수립된 것들을 거의 여과없이 반영해 그 시안이 마련됐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야 한다는 의견들이 분분했다. 시안의 작성과정에서부터 적잖은 문제를 안고 있었던 이 계획은 계획이 최종 확정되기까지 어떻게 종합적인 검토를 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일임이 틀림없다.

종합발전계획이 확정되면 향후 10년간은 그 계획에 따라 우리학교 학사부문에 대한 전반적인 일들이 진행될다는 원칙적인 사실을 지나치지 말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10년후의 장기적인 계획들도 이번이 마련되는 계획의 방향을 토대로 마련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 계획에 대한 검토가 아주 신중히 이뤄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18일의 공청회 진행과정을 지켜본 이들의 마음은 실로 착잡하지 않을 수 없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공청회였는가에 하는 의문을 제기해 보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많은 이들이 사전 홍보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기획실에서는 약 2주전에 교내의 각 학과나 기관에 공문을 보내 공청회에 대한 홍보를 했기 하면, 일부 기관에는 전화를 걸어 공청회 참석을 유도하기도 했으며 당일에는 교내방송으로 공청회에 참석해 줄 것을 홍보했다고 한다. 물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홍보였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학과간의 의견들은 적극적인 홍보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한라문화제와 같은 우리학교의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행사에 대해서는 공물여 분관입구에 현수막을 내걸면서라도 학교의 미래를 좌우할 종합발전계획에 대해서는 왜 그 흔한 현수막 하나 내걸지 못하는가. 각 기관에 공문은 보냈지만 게시판에 공문들을 붙일 생각은 왜 했는가. 공청회 시기도 하필이면 왜 중간고사 기간에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도 불만들이 없지 않다. 그리고 우리학교의 발전은 전 제도로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공청회에 대한 홍보를 전적으로 해야 관심있는 지역의 동문과 학부모를 비롯 여러 지역인사들이 학교발전을 위한 작업에 참여하게 될 것이 아니겠느냐는 지적들도 있다.

실제로 공청회에 꼭 참석해 의견을 제시하고 싶었는데 공청회가 언제 열렸는지를 몰라 참석 못했다는 이들이 많다. 공문을 전해본 이들도 2주전에 실시되는 공청회를 잠시 잊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고 그 공문이 제대로 열람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이와같은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공청회를 다시 열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공청회 당시에도 '다시 한번 공청회를 열자'는 의견이 나왔고 기획실에서도 그 의견을 검토해 보겠다고 했으니, 우리는 다시 한번 공청회가 열리리라고 기대한다. 사전에 가능한 홍보수단을 총동원해 발전계획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시키고 나서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는 제1차회의의 목적들을 기획실에서 수렴해 주리라 믿는다. 그래야만 발전계획에 대한 전체대의 의견을 종합할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은 학교발전을 위한 커다란 수확이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실사 공청회를 통해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다 수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전체대의 관심을 한곳으로 집중시킬 수 있을 것만은 확실하다. 당국은 전체대인을 학교문제에 관심을 갖게 만드는 것도 학교발전에 큰 보탬이 되는 일임을 명심하자.

원고를 모읍니다

제대신문은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로 만들어집니다. 학교행정에 개선을 바라는 사람이나 새로운 학문동향에 대한 주의·주장, 소박한 삶의 이야기들을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교수·학생신문 : 30대 내외 △시론(時論) : 20대 내외 △특종(特種) : 4~5대 △공개(公開) : 3대 내외 △기타 : 시·수필·풍토·만화·만평·사진 ※채택된 원고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대학종합발전계획 공청회' 속기록

계획에 재정확충 방안도 마련돼야 유사학과신설 이유·재원확보대책등 지적

우리학교 종합발전계획안 학사부문 공청회가 교수·교직원·학생 1백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0월18일 자연대 세미나실에서 약 6시간 30분동안 진행됐다.

1992년부터 2001년까지 10년동안 우리학교가 지향해야 할 발전의 방향과 목표를 담은 발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학내외의 의견을 수렴하고 발전적이고 실현성있는 계획안을 담아내기 위한 이번 공청회는 당초 10월11일 법정대중강당에서 가질 예정이었으나 중강당과 총학생회주최의 '민중자주학교'행사 일정과 겹쳐 결국 이날 자연대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번 공청회는 계획안 설명·의견개진 및 보충설명·종합정리의 순으로 진행됐는데 20여명의 질의자들은 단과대학 및 학과신설기준·재원확보문제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질의했다.

질의의지를 분야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학생정원과 학과증설

△93년도 자연대에 신설예정인 전산통계학과는 기존의 정보공학과와 유사학과임에도 불구하고 신설이 제기되는 필요성과 목적은 무엇이며 졸업후 사회에서의 인력수급은 어느정도 검토되었는지 신설이 됐을 경우 실험실·교수·학생·실험습기 기자재의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한 유사학과 신설로 기존학과와 신설학과 모두 교육부의 지원을 덜 받게될 우려를 안고 있다.

△정부는 92년부터 96년까지 시행되는 제7차 경제사회발전5개년계획에 전국 29개 국립대에 대한 단계적 특수법인화방안을 담고 있다. 이 방안은 정부지원금과 육성비·비·시설·독립적인 예산을 집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방안이 실현되면 지방국립대인 우리학교는 재정·인사·재정·기자재확보에 어려움 교육의 질적하향과 우수학생을 수용하지 못하는 악순환을 되풀이 할지도 모른다. 이러한 상황에서의 학과신설은 학교의 양적팽창만을 가져와 학교의 질이 저하될 것이다. 따라서 학교발전계획에 필요한 부분만으로 축소·조정해야 할 것이다.

△우리학교의 여학생구성비가 50%이상을 넘고 있는 데 증가하는 여학생수와 평생교육·사회교육의 교육적필요와 수요로 볼때 교육학과 신설이 요청된다. △전산통계·계산통계학과는 학문영역이 데이터를 컴퓨터로 분석하고 유용한 모델을 제시하여 통계처리하는 데는 정서적 정보공학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유사학과라고 규정하여 학과신설을 반대하는 것은 학문발전의 저해되는 것이다. △기존학과와 실험기자재

및 학문적 연구성과를 일정 정도의 수준으로 끌어올린후 새로운 학과를 설치하는 계획이 검토돼야 한다.

△1992년도에 비해 앞으로 10년후에는 19개학과 7백70명이 증원되는데 다문화사회의 도래했음에는 대학의 가치가 하락될지도 모르고 진학과 수료로 봤을때 그러한 증원은 무리다.

△미술학과 음악학과 2개학과로 예술대학을 설치하는 것은 예산의 낭비를 우려케하며 산업디자인학과 예술대 편입도 검토돼야 할 것이다.

△농대교수회에서 신설을 보류하기로 결정한 '생물공학'과가 명칭만 '생물공학'과로 바뀔지 계획안에 포함된 배경은 무엇인가.

특성화분야의 연구방안

△연구소의 정비·통합·개편내용을 '방사능 이용연구'소는 생명공학연구를 중심으로 확대·개편한다고 했는데 명칭도 '핵기술 이용연구'로 개칭했으면 한다. 따라서 '생명공학연구'를 중심으로 '핵기술이용연구'를 중심으로

로 변경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범위를 넓혀 유전공학·환경방사능·환경지하수 개발이라든지 핵과 관련된 분야의 연구를 도모할 수 있었으면 한다.

△제주지역의 사회구조, 경제학적 측면을 고려해 산업디자인학과를 특성화분야의 육성방안에 포함시켜 육성할 수 있었으면 한다.

△경제성장에 따라 식량자원에서 동물자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인데 특성화분야에서 축산분야와 수의분야가 제외된 것은 유감이다.

연구활동 및 지원체제

△학생생활연구소를 삼당소로 개편하는 것은 삼당제의 문제가 뒤따르므로 그대로 둔 채 지원체제적인 상담기능을 강화하면서 연구기능을 병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획실의 연구기능은 '교육문제연구소' 등을 신설, 전문적인 연구기관으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

△학술교류협정관계에서 현재 2개국 5개대학과의 교류를 계획기간내에 최소한 5개국 10개교로 확대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유럽 및 사회주의 국가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포함할 수 있었으면 한다.

△법정화된 연구소를 통·폐합 하는 것 보다는 존치시키고 관련된 다른 연구소를 이 있으면 그 연구소를 다른 성격의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행정조직과 지원체제

△사법대학 부속 중·고등학교는 사업소속 성격을 띤 기관인데 일선학교가 가지고 있는 중등교육의 문제점을



△지난 10월18일 우리학교 종합발전계획안(학사부문)에 대한 공청회가 자연대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연구하고 결과를 보급시키려는 연구기능의 성격이 미약하다.

△계획안에 나온 '문화관의 건립'보다는 세계적 학술교류 및 세미나 개최를 위한 대규모공간이 더 절실하다.

대학의 이념과 목표

△종합발전계획의 방향은 학원의 주된인 교수·교직원·학생을 주체로 세울 수 있어야 하고 재정이나 현안문제 등의 실정에 근거해 전망해야 하며, 학원의 자주화와 지역발전의 공헌해야 함은 물론 분화하는 정세에 맞게

적여져야 한다. △국제화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안이 결여돼 있다. 외국인 교수·연구원·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이 담겨져야 할 것이다.

교육내용과 방법

△언어·수리교육의 경우에 수준별 수업을 편성한다는 계획은 재고돼야 한다.

△교과내용의 중복과 반복을 탈피하기 위해 현 학과단위의 교과문제를 단과대학 또는 대학교 전체 차원으로 확대시켜 개편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행·재정제도

△대학내의 재정난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강력하게 국가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어야 하는데 '대학의 정상적 운영을 위하여 국고지원의 획기적인 확대를 위한 정부정책적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의 수준에만 머물고 있어 안타깝다.

△현재 학과에서의 '학과장'이라는 명칭을 '학과주임' 교수라는 명칭으로 바꿀 수 있었으면 한다.

△연구원의 권한 축소와 상대적으로 전제교수회의의 권한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 강구가 검토돼야 할 것이다. △등록금 인상시 학생들의 참여를 배제한 안이다.

교원과 직원

△각 연구소마다 연구소장은 있지만 실제 연구소를 운영하고 연구를 전담해야 할 연구원은 전무한 상태다. 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연구의 대학기능을 위해서라도 이의 개선이 시급하다.

△교수의 공개채용시 교수·교직원·학생이 참석한 가운데 교수의 능력을 평가하고

이 3자의 합의로 채용이 결정되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학생자치활동 및 복지

△현재의 학사일정은 대부분의 총학생회사업이 배제된 상태에서 계획되고 있으므로 학교당국은 이를 조정·지원해 주기 위한 배려를 해야 한다.

△단과별로는 과제로서 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을 비치하거나 공간을 넓혀줌은 물론 중앙도서관의 도서목록을 단과에 비치하는 것도 검토돼야 한다.

△소비조합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운영의 공개 및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이다.

△여가·체육시설 활용의 장소가 부족한 실정임으로 이의 확충과 도민을 상대로 한 체육시설 확보의 여건마련에 노력해야 한다.

한편 이번 공청회는 개최에 따른 홍보가 잘 안된 탓인지 당초예상보다 적은 인원이 참석해, 추후 공청회를 다시 한번 개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고희갑 기자】

개신간

『박토의 혼』

—조정래 지음

이 책은 작가 조정래가 '태백산맥'에 이르기까지 조정래 문학 20년의 핵심이자 그 문학정신의 뿌리가 되는 대표 중단편을 작가 스스로 자신한 작품집이다. 스토리의 재미, 인물의 생

동감, 사건 전개의 사실성, 메시지의 무게, 토속적인 정서, 배경의 개관성등 조정래 문학의 특징을 다시 확인케 하는 『박토의 혼』은 『태백산맥』과 『아리랑』에 이르는 대장정의 출발점이라는 새로운 의미를 갖는다. 수록 작품은 『박토의 혼』, 『청산록』, 『어떤 술가의 죽음』, 『동행』, 『방학』, 『메이리 메이리』, 『화색의 땅』, 『마술의 손』, 『시간의 그늘』 등이다. (아카데미출판사·4천5백원)

無 論 有 說 세계사·한국사·제주도사

국제·지방화 시대에 우리는 방관만 할 건가

3년전 세계 올림픽을 서울에서 성황리에 치른 데 이어, 금년 10월에 우리나라는 북한과 함께 유엔에 가입하였다. 명실공히 국제화시대의 주인이 된 셈이다. 전국인이 이를 기뻐하였고, 우리 제주도에서도 금년 한라문화제 만큼은 유엔가입을 축하하는 축하하는 행사로 치루었다.

금년 봄 우리나라는 공산주의 종주국인 소련과의 교섭관계를 맺는데 이어, 소련 대통령 고르비치는 한국을 방문하였다. 방문지는 한국의 제주도. 화창한 봄날 고르비치는 제주도 남쪽 해안의 유채꽃 핀 절벽 위를 우리 대통령과 산책하였고, 그때부터 제주도를 평화의 섬이라 하였다.

우리나라는 올해 들어 갑작스러운 만지 국제무대에 두각을 나타냈고, 금세기 초 세계질서에 피동적이고 착취당하는 입장에서 이제는 그 질서를 이끌어나가는 입장으로 바뀌었다. 이러한 입장의 바뀔에 즈음하여, 어느 다른 지 방대학교수가 담당한 우리 나라 문제의 화살을 역사교육에 맞춘 신문글을 본

적이 있다. 과연 우리나라 국민이 능동적 세계시민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감당할 지적 정신적 준비가 되어 있는가? 세계시민으로서 행세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교양, 다른 나라 역사에 대한 세계사적 지식은 제대로 갖추었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한다.

지난 9월말 교육부에서 우리나라 21세기 교육방향 제시한 교육과정개정위원회 회의의 시안이 발표되었다. 바야흐로 고도산업정보화, 국제화시대의 21세기를 대비해서 외국어와 컴퓨터 교육을 국민학교에서부터 실시하는등의 개정시안을 내놓았다. 그러면 다른 한편 역사교육에 대해서는 정보 후퇴한 시안을 제출했는데, 국사는 고교 필수과목에서 제외하고, 중학교 국사도 사회과목에 흡수시킨다는 것이다.

서울의 한 신문 사장은 이를 다음과 같이 꼬집었다. 설마 세계시민을 키운다고 제나라 역사도 잘 모르는 열간이 국제인을 만들 것이냐고. 참다운 국제인이라면 제나라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고 제고장의



문화에 대한 애정과 긍지를 가져야 하지 않는가라는 지적이었다.

20년전부터 거슬러 1970년대초부터 우리나라 국사교육은 대학에서 교양필수 과목으로 지정하였다. 한국적 민주주의를 지향한다는 명분아래 권위주의 정치체제 아래서 국사교육을 강화한 적이 있다. 그러나 그 국사교육은 다른 정치, 사회, 경제분야에서처럼 개방전 일체의 잔재, 이른바 식민주의 사관을 청산하지 못한 것이었고, 중앙과 지방을 중심으로 기술되었다. 설마 세계시민의 지적을 미화시킨 역사였다.

아울러 남북한 양쪽 모두 한국의 역사 교육과 연구의 많은 부분이 자기네의 정치 이데올로기를 뒷

받침하는 방향으로 구성되었다. 이제 다가오는 우리 나라 21세기는 민족통일의 시대임으로, 민족의 동질적 정체성을 불러 줄 분단극복의 국사가 필요하다.

동시에 21세기는 지방자치의 시대로, 국사는 중앙중심의 역사에서 탈피하여야 한다. 바야흐로 지방사교육이 필요한 때인 것이다. 지방사회의 발전방향과 목표를 제대로 가르치고 그 계획을 내실있게 추진하려면, 자기 지방과 고장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와 애정을 바탕으로 깔지 않으면 안된다. 21세기 제주도는 과거 중세봉건국가시대부터 1천년간 변방으로서 대접받았던 상황에서 당연히 자리바꿈할 것이다.

21세기 제주도는 올림픽성화가 처음 도착하고, 고르비치는 오는 것으로 그치는 제주도가 아니다. 한국의 제주도가 아니라 세계의 제주도로 변모할 것이다. 그러할 때, 다른 나라에서 제주도의 역사와 문화를 알고자 하는 요구가 많을 것은 물론이다. 이제 제주도 역사는 호사자들이 다루는 골동품 취급만을 받아서는 안된다. 제주도 역사 연구를 다른 지역 연구자에게 맡길 것이며, 제주도 유적 유물 발굴을 아무나 해도 좋은 것인가? 사학과 부교수

국제학술회의개최

1991년 10월25일(금요일) 09:10~09:40 축사 김형욱/제주대학교 총장 마지드, 테레지안/미국 하와이대학교 마츠나가평화연구소 소장

10:00~12:00 제1분과 주제: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 발표: ①법안을 넘어서: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변화하는 정치질서 스테판 헤거트/미국 하버드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②동아시아의 평화와 남북한관계, 그리고 제주도의 미래 고성준/제주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소장 13:30~16:00 제2분과 주제: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 발표: ①법안을 넘어서, 요원한 평화: 동북아시아의 미국의 신뢰구축 방안 앤드류 맥/호주국립대학 국제관계학과 교수

②블라디보스톡, 코라노노스크, 그리고 제주도: 지역평화를 위한 소련의 견해 노다리 시모니아/소련 IMEMO 부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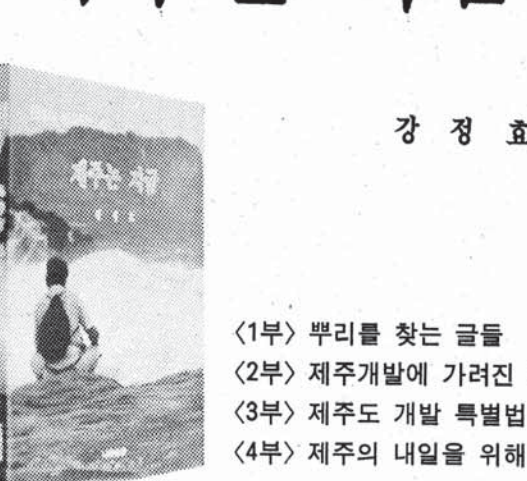
③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중국의 입장 간수청/중국 평화발전연구소 선임연구원 16:30~18:30 제3분과 주제: 평화와 변역의 제주미래를 위한 구상 발표: ①외국인이 보는 제주도의 국제화 방안 제임스 손/미국 하와이주 상원의원

②'평화의 섬'을 위한 제안

1991년 10월 26일(토요일) 09:00~12:00 종합토론 I 주제: 변화하는 국제환경과 제주도: 정책참여자들의 견해 13:30~16:00 종합토론 II 주제: 변화하는 국제환경과 제주도: 제주도민들의 견해 16:15~19:00 종합토론 III 주제: 평화와 제주미래: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땅의 젊은이가 본

제주는 지금



장정효

〈1부〉 뿌리를 찾는 글들
〈2부〉 제주개발에 가려진 실제
〈3부〉 제주도 개발 특별법
〈4부〉 제주의 내일을 위해

타마가 한반도의 영향권 아래 들어간 이후 일천 수백여년동안 이땅의 민중들은 온갖 고난속에 살 아온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고난의 역사를 다룬다면 이 땅의 주인인 제주인의 시각에서, 제주인을 위한 관점에서 문제점들을 고찰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주의 모든 현상에서 그 주체는 반드시 제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머리말에서—

나라출판 4,000원

●組織과 民主主義 참고도서

유고슬라비아 노동자자치관리제도와 조직권력

●인간적 사회주의를 위한 하나의 시도

高 忠 錫 지음

유고슬라비아는 東歐 共產體制 變혁의 선구자로서 1948년 여름 모스크바와 결별하여 스탈린體制를 청산하고 自治管理社會主義의 길을 다져온 나라이다. 東歐의 여러 나라들이 혁명적 소용돌이를 겪고 있는 오늘날에 있어서도 자치관리사회주의는 유고인의 중요한 社會的 價値로서 그 바탕이 흔들리지 않고 있다.

자치관리 사회주의의 무엇이 그들의 의식 형태를 이제껏 支配하고 있는지, 그 制度가 걸어온 失敗와 成功의 歷程을 —瞥해 본다.

유고슬라비아는 東歐 共產體制 變혁의 선구자로서 1948년 여름 모스크바와 결별하여 스탈린體制를 청산하고 自治管理社會主義의 길을 다져온 나라이다. 東歐의 여러 나라들이 혁명적 소용돌이를 겪고 있는 오늘날에 있어서도 자치관리사회주의는 유고인의 중요한 社會的 價値로서 그 바탕이 흔들리지 않고 있다.

자치관리 사회주의의 무엇이 그들의 의식 형태를 이제껏 支配하고 있는지, 그 制度가 걸어온 失敗와 成功의 歷程을 —瞥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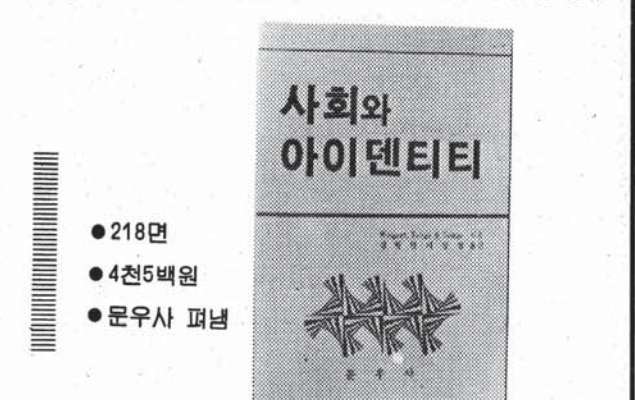
유고슬라비아는 東歐 共產體制 變혁의 선구자로서 1948년 여름 모스크바와 결별하여 스탈린體制를 청산하고 自治管理社會主義의 길을 다져온 나라이다. 東歐의 여러 나라들이 혁명적 소용돌이를 겪고 있는 오늘날에 있어서도 자치관리사회주의는 유고인의 중요한 社會的 價値로서 그 바탕이 흔들리지 않고 있다.

자치관리 사회주의의 무엇이 그들의 의식 형태를 이제껏 支配하고 있는지, 그 制度가 걸어온 失敗와 成功의 歷程을 —瞥해 본다.

法文社 5,000원

사회와 아이덴티티

Weigert, Teitge & Teitge 지음/김학원·이상철 옮김



제 1부 아이덴티티의 근원과 이론에 대한 접근

제1장 아이덴티티: 사회학적 심리학내의 아이덴티티의 출현

제2장 사회학적 심리학과 아이덴티티 이론: 제단적인 소논문

제2부 아이덴티티의 이론의 적용과 확대 및 사회에의 적용

제3장 몸의 아이덴티티 이론의 적용: 성(性) 아이덴티티

제4장 몸을 넘어서 아이덴티티 이론의 확대: 출생전 및 사후의 아이덴티티

제5장 다원적 사회에서의 아이덴티티

'끊임없는 투쟁 전개' 결의

22일 열린 특별법 저지 제2차 범도민 쫓기대회서 학우들, 연좌농성·단식·상경투쟁등 입장표명

지난 9월16일 있었던 범도민 쫓기대회 이후 중간고사 등으로 인해 식이거던 제주특별법 제정 반대투쟁 열기가 지난 10월14일부터 시작된 교문앞 연좌시위, 16일·21일에 있었던 특별법 저지 결의대회, 16일부터 시작된 총학생회장과 동원회장의 7일간 단식투쟁, 9명의 제총합선봉대의 국외 상경투쟁, 21일 천주교 제주 교구 사제단에서 특별법 제정 반대 성명서 발표, 22일 범도민 쫓기대회로 이어지면서 투쟁의 불꽃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다.

10월22일 오후 3시에는 '제주도 개발 특별법 제정 반대 제2차 범도민 쫓기대회'가 탐동매립지에서 범도민회 주최로 열렸다.

지난 9월 16일 1차 쫓기대회에 이어 두번째 열린 이날 쫓기대회에는 2천여명의 시민과 학우가 모인 가운데 식전 문화행사, 쫓기대회, 광양로 터리까지의 평화행진, 결의대회 순으로 진행됐다.

도민대회에서 범도민회는 규탄성명서를 통해 "10월16일 특별법 관련 야당의원의 대정부 질문에 대한 정총리의 발언은 국가의 대의를 잃어지고 있는 세상으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한다"면서 "반도민적이고 시대역행적인 이러한 작태는 역사 앞에 돌이킬 수 없는 착오를 범하고 있으며 제주도민의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고 정부와 민자당을 비난했다.

이날 대회는 광양로터리에 서 가진 결의대회를 끝으로 성료됐는데, 한석지(사회과 육과 부교수) 범도민회 정책위원장은 폐회사에서 "제주도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청년 학생과 도민임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했다"고 강조하고 "이제는 특별법이 옳으나 그 르냐를 논쟁할 게 아니라 저지를 위한 체계적인 계획과 실천으로 끊임없는 투쟁을 전개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총학생회(회장 위성곤 원내 4)에서는 학우들에게 특별법 저지의지를 계속 고취시키고 그 투쟁 의지를 2차도민대회까지 지속시키기 위해 지난 10월 14일부터 22일까지 매일 아침 8시30분부터 1시간 동안 교문앞 연좌시위를 벌이며 홍보전을 펼쳤다.

10월16일 있었던 '특별법 결사 저지'와 도민대회 사수를 위한 청년이라 결의대회'에서 위성곤 총학생회장은 "특별법을 철회하라"는 핵심요구로 저지시켜내고 노정권의 학생운동 탄압을 근지에서부터 분쇄시키며, 조국의 자주·민주·통일을 지향하는 민주정부 수립의 시대적 요구를 받아 안자"고 역설하면서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이 단식투쟁은 그간 중간고사 등으로 해이해진 투쟁의 대의를 정비하고 학우들에게 투쟁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한 것으로 동아리연합회장 강창권(전기공·4) 학우와 함께 22일 제2차 범도민 쫓기대회에까지 7일간 전개됐다.

또한 지난 10월 20일에는 제주간호보건전문대학 총학생회장 김순하 학우를 대상으로 한 9명의 '특별법 결사 저지' 제총합선봉대가 상경, 21일 서울 프라자 호텔에서 오전 7시30분부터 있었던 '제주도개발 특별법 제정에 관한' 당정회의에 제주도 국회의원 3명에게 당정회의 불참과 제2차 도민대회까지 동



△당정회의에서 제주도개발특별법을 정기국회에 상정·통과시키기로 확정된 가운데 10월 22일 탐동매립지에서 열린 제2차 범도민 쫓기대회에서 2천여명의 학우와 시민들은 국외상경 투쟁을 지속해 투쟁을 전개기로 결의했다.

참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도민대회 전날인 10월21일 오후 3시 민주광장에서 열린 '특별법 결사저지 도민 대회'에서 청년이라 결의대회'에서 발표된 특별법 결사저지 제총합선봉대 결의문에서는 "특별법을 반드시 저지 시켜

내고 도민을 위한, 사람사는 세상을 위한 민주정부 수립의 길에 우리의 힘과 지혜를 바치자"면서 "오늘 우리의 발걸음은 1만2천 청년학도의 투쟁이고 특별법 결사저지의 의지를 현장권에게 보여주는 것임을 굳게 믿으며 호르러 집 없이 결사의 각오로 투쟁 할 것"임을 밝혔다.

한편, 2차 상경투쟁은 범도민회 차원에서 벌일 예정이나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허중훈 전총학생회장 1년6월 실행선고 받아 광주고법에 항소

90학년도 총학생회장이었던 당시 각종 집회와 시위를 주도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허중훈(경제학과 91년졸) 등 문이 지난 9월20일 열린 제2차 범도민 쫓기대회(재판장 박성철 부장판사) 2차공판에서 징역 1년6월의 실행을 선고받았다.

앞서 허중훈은 지난 8월30일 있었던 1차공판에서는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또한 과거시위를 벌인 혐의로 지난7월1일 구속기소된 이순창(농학과 3 91년졸) 학우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허 중훈은 이날 선고 결정에 불복, 현재 광주지방법원에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제주주고 문은 도입인 일맥회에서는 지난 10월5일 일맥회를 커피승 목신의 오 후에서 연 바 있다.

총9억6천7백여만원 지급 2학기 교내외 장학금으로 37개 외부장학 재단서도 1억7천여만원

91학년도 제2학기 교내·외 장학금 지급내역이 확정·발표됐다. 장학담당관실(실장 문천탁)에서 집계한 자료에 의하면 교내장학금을 총 2천1백85명에 7억9천4백74만4천5백원이 지급돼 작년 같은 학기에 비해 1억1천5백20만3천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내장학금 지급현황을 각 단대별 보면 다음과 같다. △인문대학:수혜인원 3백91명, 1억3천6백56만7천5백원 △법정대학:1백91명, 6천2백34만6천원 △경상대학:3백67명, 1억2천2백98만9천원 △사범대학:1백16명, 3천9백8만4천5백원 △농과대학:2백48명, 9천27만5천5백원 △해양과학대학:2백8명, 7천9백71만4천원 △자연과학대학:2백77명, 1억7천22만2천원 △공과대학:3백87명, 1억5천6백54만6천원.

한편 교외 장학금 지급내역을 보면 9월24일 현재 37개 장학재단에서 총 1억7천3백24만6천5백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재단별 교외장학금 지급내역은 다음과 같다. △삼산장학재단:수혜인원1명 장학금 지급액61만원 △한산기술장학재단:1명 64만8천원 △한산합동재단:2백51만7천5백원 △해군위탁장학:13명 8백77만4천원 △지도자육성장학재단:10명 5백58만7천원 △정수장학재단:5명 2백90만원 △미림문화재단:2명 1백50만원 △I.B.M:1명 64만12천원 △서남재단:3명 2백40

만원 △아산복지장학:2명 1백12만6천5백원 △정신장학회:26명 1천3백만원 △동원육영재단:1명 90만원 △노영문화재단:1명 50만원 △한국장학회:45명 2천5백18만6천원 △해성문화장학:4명 2백20만9천원 △동부문화장학:2명 1백4만1천원 △한국관광장학:1명 16만원 △한국투자신탁:3명 90만원 △월해재단:2명 1백20만4천원 △정석학회:20명 7백14만3천원 △푸른장학회:7명 2백만원 △제주대총장회:8명 4백80만원 △문암장학:2명 1백20만원

△후암장학:7명 3백50만원 △대창기업:2명 41만8천5백원 △제주장학재단:9명 5백40만원 △일산장학회:1명 60만원 △수협중앙회:1명 31만원 △연합합선:1명 52만5백원 △함덕장학회:4명 1백60만원 △훈원장학:6명 2백20만원 △한국전기통신공사:4명 2백58만4천원 △농협중앙회:10명 3백만원 △충무체육장학:2명 1백7만9천원 △해성장학:3명 75만원 △제주대학장학회:25명 1천3백94만8천원 △사도장학:81명 4천5백50만원.

24일부터 아라체전 개최 교직원 체육대회도 열려

'91 추계 아라체전이 총학생회(회장 위성곤 원내 4) 주최로 오는 10월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대운동장, 체육관 등 교내일원에서 실시된다. 24일 개막경기를 시작으로 교내길놀이, 개회식, 본경기(예선: 축구, 배구, 씨름, 탁구)와 동여리 퍼파스트의 나하시합이 있고, 25일에는 본경기 준결승이, 26일에는 본경기 결승이 각각 벌어진다.

한편, 26일에는 총동창회와의 체육대회와 과대학 체육대회가 함께 치뤄진다. 한편, 오는 11월1일에는 대운동장에서 '교직원추계체육대회'가 열려, 축구·줄다리기·1천6백미터 계주 등 3개 종목의 경기를 통해 교직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게 된다.

인식부족 조직화실패 대자보 통해 '제학특위' 해체선언

민생파단 민중운동 탄압본쇄 및 민중의 민주주의의 쟁취를 위해 금년 6월21일 결성됐던 '제주지역 학생특별위원회'(위원장 오성진 행정4)가 특위활동의 활성화를 이루지 못했다는 자체평가를 내리면서 지난 9월30일 해체를 선언했다.

제학특위는 이날 해체를 알리는 대자보를 통해 △특위 건설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참여부족으로 인한 조직화 실패 △운영방식의 비공개성 △총학생회와 본리된 사업전개 등으로 제학특위를 해체하게 되었다고 자체평가했다.

한편 제학특위는 광역의외선거여파로 침체된 특별법투쟁을 활성화 시키고 민중운동 탄압 및 민생파단 분쇄 투쟁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투쟁을 전개한다는 목표로 결성됐었다.

그동안 제학특위는 주로 대자보와 유인물을 통한 선전작업에 주력했으나 당초 꾸준히 진행되던 현장권에 대한 비도덕적 폭로 홍보작업은 자체평가에서와 마찬가지로 조직화의 실패로 2학기 들어서는 지속적으로 전개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특히 지도부의 부재와 총학생회와의 노선차이로 인한 연계투쟁의 실패는 일반학우들의 지지마저 얻지 못한채 사업을 수행해 온 것도 해체선언의 계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것이 학우들의 지적이다.



○...체계없는 행정
공과대학 B종이 신축과 3개학과가 이미 입주해 있는데 학생회에만 때어난 불복이 내려졌다 하여 그 연유를 알아보.

당초 공과대학 B종 신축이 2/3이상 완공되면 학생회 사무실을 B종으로 옮기기로 한 당국과 학생회간의 약속에 의해 학생회가 입주하고 나서야 당국에서 준공검사를 핑계로 학생회사무실을 비워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

그 약속을 할때 준공검사 등을 고려하지 않은채 열렬통발 일기용선식으로 무책임하게 약속을 하고 입주다가 된 상태에서 나가라고 한다니 학교행정의 무책임성을 드러낸 일이 아닐까.

○...학교당국의 의견합
파손된 화장실변기가 그대로 방치된 학생회관 화장실.

교직원들이 주로 이용하는 본관 화장실은 매일 씻고 관대하는데, 학우들이 많이 사용하는 학생회관의 화장

실내에 파손된 변기의 모습은 몇달째 방치돼 기물을 파괴하는 학우들에게 본래를 보여 주시려는지, 학교당국은 의견합을 보여주고 있다고.

본래를 보여 주시려는 의도도 좋지 만 죄없는 사용자들의 고충도 한번쯤 생각해 주셨으면 어떨는지.

○...자선가의 실수
어떤 한 자선가께서 우리 학우들에게 트럭 한 대를 선사해 고민이 많았다고. 약 15일전부터 음파발 열

자선가의 실수

네거리 교차로에 주인없는 고물트럭이 주차돼 있으나 주인이 나타나지 않아 보이는 마다 궁금해 하고 있는 데.

주인어른이 어떤분인지는 모르겠으나 학우들에게 차를 주려면 확실한 문서로 기증해 주시든지 세워두려면 제대로 세워두시든지 그차로 인해 불편을 주고, 미관상으로도 별로 좋지 않으니 빠른시일내에 찾아가 주셨으면 하요.

그렇지 않으면 솜씨좋은 친구들이 고물트럭을 엮바꿔 먹을지 모르오. ○...모래위에 짓는 학교(?)

우리학교 종합발전계획안에 대한 공청회가 지난 18일 자연대 세미나실에서 열렸던 가운데 열렸는데, 사전에 공고나 그 흔한 현수막이 나붙었던 것도 아니고 약 2주일전에 공문을 띄웠다고는 하나 뽀얏게나마 안 몇몇 학우들과 교수들만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 이런 행태에 대해 무슨 의도가 숨겨져 있는게 아니냐는 말까지 오가고 있다는 사실을 학교당국은 아는지.

우리학교의 미래를 결정하는데 있어 학교구성원들에게 의견을 들켰다는 공청회 자리가 소수 특정인들의 의견만을 수렴하는 자리가 된다는 것은 '학교를 모래위에 짓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소이까.

○...청소는 내가 먼저
대운동장쪽 동아리방들이 들어있는 곳에 동연에서 쓰레기통을 몇곳에 설치해 줬는데 쓰레기통의 설치로 그동안 구멍이를 파서 태워왔던 쓰레기를 손쉽게 처리할 수 있게 됐다고 동아리인들의 환영을 받았으나, 쓰레기통에 쓰레기는 자주 쌓이는데도 치우는 사람이 없어 마침내 쓰레기통 주변이 쓰레기장이 돼버렸으니.

○...청소는 내가 먼저
"쓰레기장에는 내가 먼저, 쓰레기통 청소는 내가 먼저" 그렇게 되면 동아리방도 쓰레기더미 속에서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겠지.

역사의 주체로 서자

누구나 '대학발전기금조성'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 × ×
"내가 무슨 돈이 있다고!"
"100원 밖에 없는데..."
"승차권도 받아줄까?"
"야! 너 미쳤니? 현금하계"
"우리가 왜 대학발전기금을 내야 돼!"
× × ×

한 번쯤 상상해 볼 수 있는 광경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관객일 수만은 없습니다.



□ 직업변화와 유망직종 <3>

‘무조건 취업하고 보자’식은 금물
힘들어도 적성에 맞는 직업 택해야

전반적으로 대졸자의 취업기회가 줄어들자 인문계 출신 대졸자들이 중·고급 기술직 취업의 목적도 있었지만 취업이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 대학원 진학을 선호하는 경향이 새롭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대학원 진학이나 그 외의 개인사업, 특수·전문직 선택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취업을 결정했으면 자기 적성에 맞는 업종을 선택하는데 많은 고심이 있어야 한다.

이는 곧 첫 직장의 선택이 일생을 좌우할 수도 있다는 측면과 아무리 취업상황이 힘들어도 ‘아무 것이나’ 선택할 수는 없다는 자각이 원천적인 의미에서 스스로에게 먼저 보아야 할 기본적인 질문이다.

언뜻 보기에는 직업이 사회의 발전에 불구하고 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직업세계는 항상 변하고 있는게 주지의 사실이다.

미국 노동부의 10년주기 간행하는 직업사전에 의하면 10년마다 직업의 25%가 새로 바뀌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1970년에 간행된 한국표준직업분류를 보면 1천3백여종에 불과하던 직업이 1986년 노동부가 발행한 직업사전에 1만5천여종의 직업으로 늘어나 수록되고 있다.

미국의 직업종류가 3만에서 5만여종에 이르고 있는 것을 볼때 우리나라도 2천년경에는 지금의 직업보다 훨씬 다양하고 세분화된 직업들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앞으로 다가올 2천년대는 정보

산업의 비약적인 발전에 따라 새로운 직업세계를 맞게 될 것이다.

‘유니클’에 의하면 2천년경에 예상되는 직업세계의 변화경향을 ①여성화 ②노인층의 직장진출이 활발해질 것 ③특별한 기술이 없는 사람은 직업을 구하기가 매우 힘들어질 것 ④현재 직업을 가진 사람도 새로운 첨단기술로 인하여 끊임없이 신기술을 익혀야 하며, 학교교육보다 직업교육이 평생을 통해 계속될 것 ⑤작업시간이 짧고 고정근무시간도 신축성 있는 플렉스타임(Flextime) 등과 같은 형태로 많이 바뀌어질 것 ⑥1주일에 2·3일만 회사에 출근하고 나머지는 이른바 재택(在宅)근무를 하는 사람이 늘어나게 될 것 ⑦경제의 서비스화로 서비스계통의 직업이 크게 증가할 것 ⑧컴퓨터는 과학기술뿐만 아니라 학술, 행정, 기업경영, 의학, 일상생활 등 모든 분야에 필수화 될 것 ⑨산업로봇의 대거등장으로 인간의 노동력이 감소되고 공장 종업원은 로봇을 감시하고 조종하는 일을 담당하게 될 것 ⑩건물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증대되고 유전공학이 본격적으로 실용화되어 약품, 농업, 기타 산업제품의 혁명을 가져올 것 ⑪근무시간이 짧아지고 여가시간이 많아지며 소득이 향상됨에 따라 오락과 여가선용에 관심이 늘어나 여행, 숙박, 외식산업 등 레저 산업이 계속 성장할 것 등이다.

이러한 변화속에 다가오는 미래에 유망한 직업과 우리들이 선택해 볼만한 유망직종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자.

△관광경영관리인 △컴퓨터 프

로그래머 △디스플레이어 △통신용역사 △스크립터 △공인노무사 △비행기조종사 △레크리에이션 지도자 △프로듀서 △공인회계사 △보석감정사 △비디오 촬영기사 △제과제빵사 △그래픽 디자이너 △꽃디자이너 △파우더리셔 △원예사 △숙식사 △번역사 △카피라이터 △사보편집 전문가 △유아교사 △스크린인쇄 기사 △귀금속 세공사 △변리사 △피아노 조율사 △간병인 △애어노빅 강사 △판매사 △설류 디자이너 △산업안전관리자 △법무사 △조리사 △미용사 △안경사 △애니메이터 △인테리어 디자이너 △사서 △생활실용사 △감정평가사 △데이터 통신 설비기사 △스크

<글 실는 차례>

1. 취업난과 우리학교 취업실태
2. 고용정책의 변화
3. 직업변화와 유망직종
4. 도내 기업현황
5. 우리학교의 취업대책
6. 여학생 취업대책
7. 취업난에 대처하는 대학인의 자세(좌담)

퓨터적자 △오퍼레이터 △손해사정인 △통관공예가 △매직프린터 지도자 △프로듀서 △공인회계사 △보석감정사 △비디오 촬영기사 △제과제빵사 △그래픽 디자이너 △꽃디자이너 △파우더리셔 △원예사 △숙식사 △번역사 △카피라이터 △사보편집 전문가 △유아교사 △스크린인쇄 기사 △귀금속 세공사 △변리사 △피아노 조율사 △간병인 △애어노빅 강사 △판매사 △설류 디자이너 △산업안전관리자 △법무사 △조리사 △미용사 △안경사 △애니메이터 △인테리어 디자이너 △사서 △생활실용사 △감정평가사 △데이터 통신 설비기사 △스크

이외같이 우리가 선택하게 될 유망직종은 다양하다. 지금 전망이 좋은 직업이라 하더라도 5년 후, 10년후에 계속 유망직업이 된다는 보장은 없다. 그러므로 취업 준비하는 졸업예정자들은 확실한 미래의 직업을 선택하는데 많은 주의와 정보를 수집해야 하는 것이다.

[임상범기자]



△현실적으로 취업문제는 학생들 자신의 4년동안 대학생활의 질을 높이는 노력과 학교의 적극적인 뒷받침에 의해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 도내기업현황 <4>

(표1) 업종별 규모별 사업장현황

업종별	규모별	91. 4. 30 기준									
		계	5~9인	10~15인	16~29인	30~49인	50~99인	100~199인	200~299인	300~499인	500~999인
제조업	계	1,732	903	277	233	128	120	59	8	3	1
농수산업	계	571	545	24							
제조업	계	114	34	22	30	14	10	4			
제조업	계	8			1		3	3	1		
건설업	계	165	60	50	31	10	11	3			
제조업	계	283	107	72	59	15	12	13	3	2	
제조업	계	173	30	26	24	28	42	19	2	1	1
제조업	계	221	62	43	54	33	22	6	1		
제조업	계	197	65	40	34	27	19	11	1		

(자료제공: 제주지방노동사무소)

고 있는데, 그 인원도 일년에 한 두명꼴로 사원을 채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씨는 또 “본사에서는 공채를 하는 반면 도내에 있는 자사에서

는 특채를 통해 사원을 모집하고

있는데, 그 인원도 일년에 한 두명꼴로 사원을 채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씨는 또 “본사에서는 공채를 하는 반면 도내에 있는 자사에서

는 특채를 통해 사원을 모집하고

있는데, 그 인원도 일년에 한 두명꼴로 사원을 채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씨는 또 “본사에서는 공채를 하는 반면 도내에 있는 자사에서

는 특채를 통해 사원을 모집하고

있는데, 그 인원도 일년에 한 두명꼴로 사원을 채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씨는 또 “본사에서는 공채를 하는 반면 도내에 있는 자사에서

는 특채를 통해 사원을 모집하고

있는데, 그 인원도 일년에 한 두명꼴로 사원을 채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씨는 또 “본사에서는 공채를 하는 반면 도내에 있는 자사에서

는 특채를 통해 사원을 모집하고

있는데, 그 인원도 일년에 한 두명꼴로 사원을 채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씨는 또 “본사에서는 공채를 하는 반면 도내에 있는 자사에서

는 특채를 통해 사원을 모집하고

있는데, 그 인원도 일년에 한 두명꼴로 사원을 채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씨는 또 “본사에서는 공채를 하는 반면 도내에 있는 자사에서

는 특채를 통해 사원을 모집하고

있는데, 그 인원도 일년에 한 두명꼴로 사원을 채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씨는 또 “본사에서는 공채를 하는 반면 도내에 있는 자사에서

는 특채를 통해 사원을 모집하고

있는데, 그 인원도 일년에 한 두명꼴로 사원을 채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씨는 또 “본사에서는 공채를 하는 반면 도내에 있는 자사에서

는 특채를 통해 사원을 모집하고

있는데, 그 인원도 일년에 한 두명꼴로 사원을 채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씨는 또 “본사에서는 공채를 하는 반면 도내에 있는 자사에서

는 특채를 통해 사원을 모집하고

있는데, 그 인원도 일년에 한 두명꼴로 사원을 채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씨는 또 “본사에서는 공채를 하는 반면 도내에 있는 자사에서

는 특채를 통해 사원을 모집하고

있는데, 그 인원도 일년에 한 두명꼴로 사원을 채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씨는 또 “본사에서는 공채를 하는 반면 도내에 있는 자사에서

는 특채를 통해 사원을 모집하고

있는데, 그 인원도 일년에 한 두명꼴로 사원을 채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씨는 또 “본사에서는 공채를 하는 반면 도내에 있는 자사에서

는 특채를 통해 사원을 모집하고

있는데, 그 인원도 일년에 한 두명꼴로 사원을 채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씨는 또 “본사에서는 공채를 하는 반면 도내에 있는 자사에서

는 특채를 통해 사원을 모집하고

있는데, 그 인원도 일년에 한 두명꼴로 사원을 채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씨는 또 “본사에서는 공채를 하는 반면 도내에 있는 자사에서

는 특채를 통해 사원을 모집하고

있는데, 그 인원도 일년에 한 두명꼴로 사원을 채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씨는 또 “본사에서는 공채를 하는 반면 도내에 있는 자사에서

는 특채를 통해 사원을 모집하고

있는데, 그 인원도 일년에 한 두명꼴로 사원을 채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씨는 또 “본사에서는 공채를 하는 반면 도내에 있는 자사에서

는 특채를 통해 사원을 모집하고

있는데, 그 인원도 일년에 한 두명꼴로 사원을 채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씨는 또 “본사에서는 공채를 하는 반면 도내에 있는 자사에서

는 특채를 통해 사원을 모집하고

있는데, 그 인원도 일년에 한 두명꼴로 사원을 채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씨는 또 “본사에서는 공채를 하는 반면 도내에 있는 자사에서

는 특채를 통해 사원을 모집하고

있는데, 그 인원도 일년에 한 두명꼴로 사원을 채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씨는 또 “본사에서는 공채를 하는 반면 도내에 있는 자사에서

는 특채를 통해 사원을 모집하고

있는데, 그 인원도 일년에 한 두명꼴로 사원을 채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씨는 또 “본사에서는 공채를 하는 반면 도내에 있는 자사에서

는 특채를 통해 사원을 모집하고

있는데, 그 인원도 일년에 한 두명꼴로 사원을 채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씨는 또 “본사에서는 공채를 하는 반면 도내에 있는 자사에서

는 특채를 통해 사원을 모집하고

있는데, 그 인원도 일년에 한 두명꼴로 사원을 채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씨는 또 “본사에서는 공채를 하는 반면 도내에 있는 자사에서

는 특채를 통해 사원을 모집하고

있는데, 그 인원도 일년에 한 두명꼴로 사원을 채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씨는 또 “본사에서는 공채를 하는 반면 도내에 있는 자사에서

는 특채를 통해 사원을 모집하고

있는데, 그 인원도 일년에 한 두명꼴로 사원을 채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씨는 또 “본사에서는 공채를 하는 반면 도내에 있는 자사에서

는 특채를 통해 사원을 모집하고

있는데, 그 인원도 일년에 한 두명꼴로 사원을 채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씨는 또 “본사에서는 공채를 하는 반면 도내에 있는 자사에서

는 특채를 통해 사원을 모집하고

있는데, 그 인원도 일년에 한 두명꼴로 사원을 채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씨는 또 “본사에서는 공채를 하는 반면 도내에 있는 자사에서

는 특채를 통해 사원을 모집하고

있는데, 그 인원도 일년에 한 두명꼴로 사원을 채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씨는 또 “본사에서는 공채를 하는 반면 도내에 있는 자사에서

는 특채를 통해 사원을 모집하고

있는데, 그 인원도 일년에 한 두명꼴로 사원을 채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씨는 또 “본사에서는 공채를 하는 반면 도내에 있는 자사에서

는 특채를 통해 사원을 모집하고

있는데, 그 인원도 일년에 한 두명꼴로 사원을 채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씨는 또 “본사에서는 공채를 하는 반면 도내에 있는 자사에서

는 특채를 통해 사원을 모집하고

있는데, 그 인원도 일년에 한 두명꼴로 사원을 채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씨는 또 “본사에서는 공채를 하는 반면 도내에 있는 자사에서

는 특채를 통해 사원을 모집하고

있는데, 그 인원도 일년에 한 두명꼴로 사원을 채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씨는 또 “본사에서는 공채를 하는 반면 도내에 있는 자사에서

는 특채를 통해 사원을 모집하고

있는데, 그 인원도 일년에 한 두명꼴로 사원을 채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씨는 또 “본사에서는 공채를 하는 반면 도내에 있는 자사에서

는 특채를 통해 사원을 모집하고

있는데, 그 인원도 일년에 한 두명꼴로 사원을 채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씨는 또 “본사에서는 공채를 하는 반면 도내에 있는 자사에서

는 특채를 통해 사원을 모집하고

있는데, 그 인원도 일년에 한 두명꼴로 사원을 채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씨는 또 “본사에서는 공채를 하는 반면 도내에 있는 자사에서

는 특채를 통해 사원을 모집하고

국내 주요 기업 하반기 대졸자 채용 계획

회 사 명	모집인원	모집시기	부문 및 학과	응 시 자 격	전형방법(시험과목)	초봉 및 상여금	전 화
현 대 그 룹	3,000 인:1,100 자:1,900	11월	전학과(이공 및 인문사회 개는 백일 지원)	63.1.1이후 출생	필기(영어전공)-면접(집 단면접) 신체검사	60만원 600%(지급액)	741-2111
삼 성 그 룹	2,650	"	전학과	64.1.1이후 출생	필기(영어전공)-면접- 신체검사(개별, 집단면접)	56만원 800%(지급액)	751-2067/9
력 키 금 성 그 룹	2,360 인:1,030 자:1,330	"	전학과	64.1.1이후 출생 (군미필자 가능)	필기(영 일 어 중 택 전 공)-면접(5인1조, 집단 면접)	53만7천원 600~700% (기본급)	787-1114
선 경 그 룹	450	11월	관리직:법정·상경계 어문계 기술직:전학과	64.1.1이후 출생	필기(영어)-면접(개별면 접)	65만원 700%(지급액)	758-2026
쌍 용 그 룹	500 인:180 자:270 기타:50	11월	관리:상경 법정 인문사회 일어 영어 기술:기계 전자 전기 화 공 건축 토목 환경 무기 재료	64.1.1이후출생	서류-필기(영어상식)- 면접	58만원 600%(지급액)	270-5016
효 성 그 룹	450 인:150 자:300	"	전학과	64.1.1이후 출생	서류-면접(개별면접)	54만원 600%(지급액)	771-1300
한 진 그 룹	미정	11월	인문 사회계 이공계		추천-면접(집단면접)	59만1천원 550%	726-6613
롯데 그 룹	300	11월	전학과	64.1.1이후 출생	서류-필기(영어상식 신 택:경제원론 자연학 개론 중)-면접	55만원 600%(지급액)	771-25
두 산 그 룹	350 인:150 자:200	10월	관리직:상경계 기술직:이공계	64.1.1이후출생	서류-필기(영어 적성)- 면접	58만8천원 700%(지급액)	759-6934
대 림 그 룹	300	11월	상경 법정 행정 어문 인 문사회 토목 건축 기계 전기 화공 화학 전산 전 자	64.1.1이후출생 (군미필자 가능)	서류-필기(영어 적성)- 면접-적성 검사-신체검 사	59만5천원 600%(지급액)	730-8221
기 아 그 룹	450 인:150 자:300	11월	경영 경제 법학 행정 어 학 무역 회계 통계 신방 교육 사회학 기계 전기 전기 신산 화공 산공 등	64.1.1이후 출생	서류-필기(영어상식)- 면접(일반, 전공 면접) 신체검사	59만5천원 600%(지급액)	788-1114
한 일 그 룹	200	11월	관리직:법정 상계 어문 기술직:이공계 기타:미술 의상	63.1.1이후출생 (군미필자가능)	서류-필기(TOEIC)-면 접 신체검사	60만원 600%(기본급)	398-2031/4
삼 도 그 룹	50	11월	상경 법정 사회 어문 이 공계열	64.1.1이후 출생	서류-필기(영어 논문)- 면접	53만5천원 500%(지급액)	754-3355
강 원 산 업	미정	11월	관련학과	65.1.1이후 출생	서류-필기-적성검사- 면접	57만5천원 600%(기본급)	730-7111
포 함 제 철	400 인:150 자:250	11월	관리직:인문 사회 전학과 기술직:관련학과	64.1.1이후 출생	필기(영어 전공)-면접- 신체검사-적성검사	60만원 600%(기본급)	(0562) 70-0114
한 라 그 룹	미정	11월	전학과	63.1.1이후 출생 (군미필자 가능)	서류-1차면접-2차면접 -신체검사	55만원 600%(기본급)	559-1774
동국제강그 룹	미정		상경 금융 기계 전기	64.1.1이후 출생	서류-필기(영어 논문 적 성검사)-면접	55만원 1,170%(기본급)	757-3001
대 성 그 룹	미정	10월	상경 이공계	64.1.1이후 출생	서류전형-인성 적성검사 -면접	51만원 600%(기본급)	735-5671
한 국 중 공 업	미정	하반기	관련학과	64.3.1이후 출생	서류-필기(전공 영어)- 면접 (인문계는 전공대신 상 식)	63만5천원 600%(지급액)	(0557) 86-1515
삼 천 리 그 룹	미정	미정	관련학과		서류-필기(영어 적성검 사 전공 상식)-면접	55만9천원 600%(기본급)	783-1041
진 로 그 룹	100 남:90 여:10	11월	관리직:전학과 기술직:관련학과	63.1.1이후 출생	서류-필기(인문:영어 상 식, 이공:영어전공)-면 접	55만원 600%(기본급)	588-7321
미 원 그 룹	미정	11월	전학과		서류-필기(영어상식)- 면접	55만원 600%(지급액)	234-1171
해 대 그 룹	미정	11월	관리직:인문 사회계 기술직:이공계	63.1.1이후출생	필기(영 상식)-면접 상 적검사	60만원 600%(기본급)	716-8811
농 심	미정	11월	관리:인문 상경 법정 사 회계열 기술:식품공학 전산 관련 학과	64.1.1이후출생	서류-필기(영어전공 논 문)-면접	53만원 600%(기본급)	716-1211
고 려 할 섭	미정	11월	인문계열 이공계열	62.1.1이후출생	서류-필기(전공, 택일: 영어 일반어)-면접	50만원 650%(기본급)	733-1122
갑 을 그 룹	130 인:60 자:70	11월	관리:상경 인문 기술:이공계	63.1.1이후 출생	서류-적성검사-면접	52만원 800%(기본급)	310-3000
일 진 그 룹	100 인:35 자:65	10월	관련학과	64.1.1이후 출생	서류-면접 1차면접:임원면접 2차면접:사정단면접	53만5천원 620%(기본급)	716-3141

회 사 명	모집인원	모집시기	부문 및 학과	응 시 자 격	전형방법(시험과목)	초봉 및 상여금	전 화
동 국 무 역	미정	10월	이문 상경 공학계열	64.1.1이후 출생	필기(영어 상식)-면접 적성검사	54만원 500%(기본급)	771-1500
쌍 방 울	미정	11월	법정 상경	63.1.1이후출생	서류-필기(영어 상식 논 문 적성검사)-면접	54만원 600%(기본급)	542-9113

일반기업

회 사 명	모집인원	모집시기	부문 및 학과	응 시 자 격	전형방법(시험과목)	초봉 및 상여금	전 화
태 광 산 업	100	11월	예체능제외 전학과	63.1.1이후 출생	서류-면접(개인, 집단)	54만5천원 615%(기본급)	273-5191
한 주 통 상 서 광	30 미정	10월	관련학과 관리직:법정 상경 기술직:이공계	64.1.1이후 출생	서류-면접 신체검사 서류-신체검사-면접	58만원·500%(기본 급) 62만3천원 400%(기본급)	750-0100 922-0771
논 노	50	11월	관리직:상경 디자인:컴퓨터 외상학과		서류-필기(영어 상식)- 면접	51만원·550%(기본 급)	553-6801
한 국 타 이 어	미정	12월	관련학과	63.1.1이후 출생	서류-필기(영어 논문)- 면접 신체검사	54만원 500%(지급액)	670-5114
벽 산 그 룹	150	11월	관련학과	62.1.1이후 출생(군미 필자 가능)	서류-필기(영어 상식)- 면접 신체검사	53만원 600%(지급액)	727-5518
인 켈	60 인:30 자:30	11월	관리직:경영 무역 회계법 행정학과 외국어 기술직:전자 통신 기계 산공 공업디자인 전산 연학과	63.1.1이후 출생	서류-필기(영어 전공)- 면접 신체검사	52만원 680%(기본급)	601-6242
(주)화 승	미정	10월	관련학과	63.1.1이후 출생	서류-필기(영어 상식 논 문 적성검사)-면접	54만원 400%(기본급)	757-8711
신 도 리 코	100	10월	관련학과	64.1.1이후 출생	서류-면접-필기(영어)- 면접	52만원 1000%(기본급)	463-3781
태 평 양 화 학	미정	11월	관련학과	64.1.1이후 출생	서류-필기(전공 상식 논 문 실기)-면접	56만3천원 600%(지급액)	795-8351
극 동 건 설	미정	"	관련학과	64.1.1이후 출생	서류-필기(영어 전공 상 식)적성검사-면접 신체 검사	57만원 400%(지급액)	273-1141
한 신 공 영	120	미정	법정 상경 건축 토목 전 기 기계 전산	63.1.1이후 출생	서류-필기(영어 상식 논 문, 자-전공)-면접 신 체검사	53만4천원 500%(지급액)	532-3001
동 신 주 택 개 발	70 인:20 자:50	11월	관리직:인문사회계 기술 직:건축 토목 기계 전기	65.1.1이후 출생	서류-면접(전공상식 구 술 시험)-적성검사	58만원 500%(지급액)	562-8164/9
삼 익 건 설	50	10월	기술직:건축 토목 전기 기계 설계	65.1.1이후 출생	서류-필기(전공 상식)- 면접	56만원 400%(기본급)	681-3311
삼 부 토 건	50	10월	법정계열 상경계열 토목 건축 전기 기계 산업안전	61.1.1이후 출생	서류-적성검사-면접 신 체검사	53만4천원 450%(지급액)	756-3900
라 이 프 주 택	미정	수시	건축 토목 전기기술		서류-면접	48만원 500%(기본급)	783-7751
금 강 제 화	80	11월	관련학과	64.1.1이후 출생	서류-필기(영어 상식 논 문)-면접 신체검사	64만원 600%(지급액)	752-5161
진 도	40	11월	법정 상경계 이공계 어문	64.1.1이후 출생	서류-필기(영어 적성검 사)-면접	52만원 600%(기본급)	852-0012
현 대 페 인 트	80	11월	전학과	63.1.1이후 출생	서류-필기(영어)-면접	55만원 500%(지급액)	(032) 529-1211
한 샘	50	11월	전학과		서류-필기(영어 상식 논 문)-면접	55만원 800%(기본급)	588-0900
서 통 그 룹	50 인:25 자:25	11월	관련학과	63.1.1이후 출생	서류-필기(인:영어 논문 자:화공 화학 고분자)- 면접	54만원 600%(기본급)	675-0621
(주)동 산	100	11월	관련학과	63.1.1이후 출생	서류-필기(논문 영어 적 성검사)-면접 신체 검 사	56만6천원 650%(기본급)	273-3221
대 한 전 선	65	미정	관리직:상경 인문 전학과 기술직:이공계열	63.1.1이후 출생	서류-필기(인문계:영어 상식 이공계:영어 전공) 면접 신체검사	51만5천원 630%(기본급)	778-3771
샤 니	00명	12월	전학과	63.1.1이후 출생	서류-인성 적성검사 면 접	51만원 600%(기본급)	(0342) 2-5391
로 케 트 전 기	30명	11월	전학과	63.1.1이후 출생	서류-필기(영어 상식 논 문)-면접	54만원 600%(기본급)	511-9011
캠브리지 멤버스	00명	12월	법정 상경 섬유류류 미술 인문계열		서류-면접-필기(영어 논문)	타사수준 550%(기본급)	586-0303
(주)건 영	200	11월	관련학과	63.1.1이후 출생	서류-필기(영어 전공 상 식)-면접	59만2천원 600%(기본급)	544-8171
에 스 콰 이 어	85	11월	관련학과	64.1.1이후 출생	서류-면접-인성 적성검 사,실기테스트(디자인)	56만원 600%(기본급)	469-9292
아 가 방	00명	11월	인문사회 섬유 외상디지 인 관련학과	64.1.1이후 출생	서류-면접-적성검사 신 체검사	49만2천원 400%(지급액)	562-2171
조 선 맥 주 (주)	미정	하반기	전학과		서류-면접	47만원 600%(지급액)	833-5111
대 교 문 화	200	92년1월	전학과	63.1.1이후 출생	서류-필기(상식 영어 수 학)-면접	51만5천원 600%(기본급)	582-0900

바로 지금입니다.
좋은 시절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사랑, 학문, 사상, 방황에 이르기까지
바로 지금 뜨겁게 빠져들어야 할 때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대학시절은 단 한번밖에 없는,
황금과도 같은 4년간의 휴가라고 합니다.
이 말은 이 4년을 그냥 막 아무렇게나 써버리지 말라는 말입니다.
흔히 젊은 지성을 일컬어 뜨거운 가슴, 차가운 머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혹시 식어버린 가슴과 텅 빈 머리로
하루하루의 시간을 그냥 죽이고 있지나 않습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지배하는 사람만이
자기의 꿈을 꽃피울 수 있습니다.
도서관에서 밤을 꼬박 새워도 좋습니다.
잔디밭에 하루 종일 누워서 하늘을 바라보아도 좋습니다.
술잔을 불고 누군가와 토론에 몰두해도 좋습니다.
바로 지금, 삶을 향해 세상을 향해
당신의 뜨거운 정열을 보태보십시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보통사람은 시간을 소비하는 것에 마음을 쓰고,
재능있는 인간은 시간을 이용하는데 마음을 쓴다.」

작은 꿈도 소중히 하는
국민은행

即時現今
更無時節
—臨濟禪師

회사명	모집인원	모집시기	부문 및 학과	응시자격	전형방법(시험과목)	초봉 및 상여금	전 화
국 동 정 유	○○명	10월	관련학과	63.1.1이후 출생	서류-필기(영어 논술, 기술직:전공)-면접 적성 검사	67만원 700%(지급액)	735-6300
삼 호 물 산	30	10월	전학과	63.1.1이후 출생	서류-필기(영어 상식)-면접	56만원 500%(기본급)	730-5411
사 조 산 업	미정	수시	법정 상경 수산 전산 식	64.1.1이후 출생	서류-면접 적성검사	53만원 600%(지급액)	313-9000
동 원 산 업	60	10~11월	법정 상경 수산 식품 양	64.1.1이후 출생	필기(상식 적성검사)-면접	60만원 600%(기본급)	331-3009
크 라 운 제 과	20	11월	관련학과	63.1.1이후 출생	서류-면접 적성검사	52만원 600%(기본급)	973-0051
무 림 제 지	미정	12월	관련학과	63.1.1이후 출생	서류-인성검사-면접 신	59만원 600%(기본급)	512-3322
한 국 이 비 엽	70	10~11월	전학과	63.1.1이후 출생	서류-필기(영어 적성)-면접 신	70만원 600%(기본급)	781-6114
한 국 후 지 조	미정	10월	전학과	64.1.1이후 출생(군비 필자가능)	서류-필기(영어 일반논 문)-면접 적성검사-면접	68만원 600%	739-3281
삼 양 통 상	20	92년2월	전학과(상경계 우대)		서류-면접	50만원 450%(지급액)	778-8410
조 양 상 선	65	10월	상경 법정 어문계열	64.1.1이후 출생	추천-필기(영어 상식)-면접 신	58만원 600%(기본급)	771-4300
법 양 상 선	30	11월	인문사회 법정 상경계열	63.1.1이후 출생	서류-필기(영어 논술)-면접 신	55만원 450%(지급액)	756-6811
동 원 전 자	80	11월	관련학과	63.1.1이후 출생	서류-필기(영어전공 적 성검사)-면접 신	52만원 680%(기본급)	992-1106

금 융

회사명	모집인원	모집시기	부문 및 학과	응시자격	전형방법(시험과목)	초봉 및 상여금	전 화
한 국 은 행	미정	11	미정		필기(영어전공논문)-면접 신	타행수준	759-4114
산 업 은 행	미정	11월	전학과	64. 3. 1이후 출생	필기(영어 전공)-적성-면접 신	타행수준 850%(기본급)	733-2121
수 출 입 은 행	미정	11월	전학과		서류-필기(영어필수, 선택:경제경영 법학중)-면접 신	60만원 900%(기본급)	784-1021
주 택 은 행	미정	11월	상경계열, 전산학과		필기(영어 전공)-면접 신	타행수준 650%(기본급)	769-8114
국 민 은 행	300	"	법정 상경 인문 사회계열 전자계산학과	63.1.1이후 출생	필기(영어 전공)-면접 신	64만원 900%(기본급)	771-4000
장기신용은행	30		상경 법정 전산계열		서류-필기(영어·전공법 1)-면접 신	타행수준 650%(기본급)	782-0111
외 환 은 행	80	11월	법정 상경 인문 사회 어		필기(영어 전공 논문)-면접 신	60만원 900%(기본급)	719-0114
조 흥 은 행	미정	"	법정 상경 어문계열	학교성적 B학점이상	필기(영어, 전공 선택)-면접 신	타행수준 900%(기본급)	733-2000
서울신협은행	미정	"	법정 상경 인문 어문계열 전산 수학과	64. 1. 1이후 출생	필기(영어, 전공 선택)-면접 신	74만원 900%(기본급)	756-0505
상 업 은 행	90	"	법정 상경계열 전산학과		필기(영어 전공)-면접 신	타행수준	771-3000
한 미 은 행	70	"	인문사회계 전산 관련학과	학교성적 B학점이상	필기(영어 전공)-면접 신	60만원 900%(기본급)	731-8114
대 한 투 신	미정	11월	법정 상경 어학계열		서류-필기-적성검사-면접 신	65만원 700%(기본급)	785-3111
대 한 생 명	300	11월	상경 법정 어문 인문 사회계열(수학과 포함)	63. 1. 1이후 출생	서류-필기(영어 상식)-면접 적성검사	60만원 700%(지급액)	789-8214
제 일 생 명	150	"	법정계열 수학 전산 인문 사회계열	64. 1. 1이후 출생	서류-필기(영어논문)-면접 신	65만원 620%(지급액)	568-0101
동 아 생 명	미정	"	인문사회계열	64. 1. 1이후 출생	서류-1·2차면접-신체검 사	64만원 585%(지급액)	721-6114
흥 국 생 명	180	12월	법정사회 인문 어문 전산 계열		서류-면접 신	64만원 630%(지급액)	772-7000
한 국 생 명	50	11월	전학과	64. 1. 1이후 출생	서류-필기(영어 상식)-면접	62만원 700%(지급액)	773-3355

전기·전자기업

회사명	모집인원	모집시기	부문 및 학과	응시자격	전형방법(시험과목)	초봉 및 상여금	전 화
한 국 전 자	50	10월	인문계열 기계 재료 화공 전산학과	63. 1. 1이후 출생	서류-면접	55만원 600%(기본급)	757-5700
태 일 정 밀	50	11월	관련학과	64. 1. 1이후 출생	서류-필기(외국어 전공 논술)-면접	50만원 600%(지급액)	491-2986
포 스테 이 터	100	10월	전산관련학과	63. 1. 1이후 출생	서류-필기(영어, 적성검 사)-면접	76만원 700%(기본급)	789-7400
중 원 전 자	미정	수시	전산관련학과		서류-필기(전공)-면접	50만원 500%(기본급)	855-8681
한국이동통신	○○○○명	수시	전학과		서류-필기(영어 상식 전 공)-면접	70만원 800%(기본급)	702-6052
싸 니 전 기	10명	12월	전기 전자 법정 상경계열		추천-서류-면접	51만원 500%	866-9191
제 일 정 밀 공 업	○○명	미정	강상 이공 계열		서류-필기(영어 상식 전 공)-면접	64만원 600%(지급액)	869-1515
코리아제트스	○○명	10월	관련학과	64. 1. 1이후 출생	서류-필기(영어 상식 전 공)-면접 신	54만원 600%(지급액)	754-7621
삼 보 컴 퓨 터	미정	10월	전자 전산 계산통계 통신 상경계	64. 1. 1이후 출생	서류-적성검사-면접	56만원 800%(기본급)	390-2114
동 원 전 자	80명	11월	관련학과	63.1. 1이후 출생	서류-필기(영어 상식)-면접 적성검사-면접	52만원 500%(기본급)	992-1106

회사명	모집인원	모집시기	부문 및 학과	응시자격	전형방법(시험과목)	초봉 및 상여금	전 화
새 한 미 디 어	100명	10월	전학과	64. 1. 1이후 출생	서류-필기(영어 상식)-면접 적성검사-면접	52만원 500%(기본급)	783-9841
큐닉스컴퓨터	○○명	11월	상경 어문계열 행정 전자 전산 기계공학과		서류-면접 신	59만원 600%(기본급)	519-5114
한 국 컴 퓨 터	50	11월	관리 영입직:상경 법정 전산, 연구 기술직:전자 전산학과	64. 1. 1이후 출생 (군비필자 가능)	서류-필기(영어, 전공 적성검사)-면접 신	55만원 700%(기본급)	717-6531

국영기업

회사명	모집인원	모집시기	부문 및 학과	응시자격	전형방법(시험과목)	초봉 및 상여금	전 화
서울지하철공사	미정	미정	전학과	1935제이하	서류-필기-(국사 상식 전공 외국어)-면접	50만원 600%(기본급)	583-8923
수 자 원 공 사	미정	11월	법 행정 경영 경제 부동 산 토목 전기 기계 통신 환경 관련학과	63. 1. 1이후 출생	필기(영어 전공 논술)-인성검사-신체검사-면접	57만원 800%(기본급)	(042) 623-0920
한국무역협회	25	11월	법정 상경 어문 전산 계 열, 신발과	64. 1. 1이후 출생	서류-필기(영어 상식 전 공)-면접	60만원 700%(기본급)	551-0114
무역진흥공사	30명	11월	전학과	62. 1. 1이후 출생	필기(필수:영어 경제학론 논문, 백일, 선택:법정 외국어)-면접 신	53만원 800%(기본급)	551-4181
농수산물유통공사	미정	수시	경영 경제 무역 회계 통 계 수산 농학 교육학과	만29세미만	서류-필기(영어 전공 상 식)-면접	타공사수준 800%(기본급)	795-8201
한국전력	미정	11월	미정	62. 1. 1이후 출생	필기(영어 상식 전공)-면접 신	타공사수준 600%(지급액)	550-4031
대학주택공사	미정	11월	전학과	63. 1. 1이후 출생	필기(영어 상식 전공)-신체검사-면접	타공사수준 800%(지급액)	513-3114
한국도로공사	미정	11월	관리직:전학과 기술직:관련학과	63. 1. 1이후 출생	필기(영어 전공 선택 논 문)-면접	57만원 800%(기본급)	230-4114

제 약

회사명	모집인원	모집시기	부문 및 학과	응시자격	전형방법(시험과목)	초봉 및 상여금	전 화
한 미 약 품	100	10월	관련학과 영입부문:전학과		서류-면접 적성검사	51만원 600%(지급액)	555-4141
유 한 약 행	40	미정	관련학과	63.1.1이후 출생	서류-필기(영어 논문 상 식)-면접	51만원 700%(지급액)	815-0181
한 독 약 품	미정	미정	인문사회 이공계	당해년도 졸업	서류-면접	56만원 500%(기본급)	(032) 526-3311
부 광 약 품	미정	미정	관리(경영 회계) 이공(약학 제약) 기술(약학 제약 전산 화학)		서류-필기(영어 상식)-면접 신	51만원 600%(지급액)	815-2233
일 동 제 약	60	10월~11월	관련학과	64.1.1이후 출생	서류-필기(영어 상식)-면접 적성검사-면접	56만원 600%(지급액)	923-0081
대 응 제 약	100	10월	영입(학과제한없음) 관리직:법 상경계열 기술직:약 학 화학 생물 학 유전공학 전산		서류-필기(영어 적성 상 식)-면접	54만 5천원 700%(지급액)	550-8164
일 양 약 품	63	11월	관련학과	64.1.1이후 출생	서류-필기(논문)면접	51만5천원 600%(지급액)	912-5291
중 외 제 약	60	11월	영입:전학과 관리:경상 법정계열 기타:이공계 제약학과	62.1.1이후 출생	서류-필기(영어 상식 논 문)-면접	51만원 600%(지급액)	841-1212

지역기업

회사명	모집인원	모집시기	부문 및 학과	응시자격	전형방법(시험과목)	초봉 및 상여금	전 화
전 라 일 보	미정	미정	전학과	63.1.1이후 출생	서류-필기(영어 상식)-면접	50만원 400%(지급액)	(0652) 253-7111
광 전 자 그 룰	100	11월	관련학과	63.1.1이후 출생	서류-필기(외국어에 한 한 공 단 사회인문은 상식)	50만5천원 500%(기본급)	(0653) 858-5001
광주생명보험	40	하반기	상경 법정 인문 사회계열	63.1.1이후 출생	서류-필기(영어 상식 논 문)-면접	60만원 600%(기본급)	(062) 624-4961
동양강철공업	10	12월	공학계열		서류-면접(개별면접)	52만원 600%(기본급)	(042) 624-4961
충청일보사	미정	수시	전학과		서류-필기(국어 논문 영어 상식)-면접	59만원 400%(지급액)	(0431) 62-5551
전남매일신문사	미정	10월	전학과	63.1.1이후 출생	서류-필기(국어 영어 상 식)-논문-면접	40만원	(062) 675-2511
대전생명보험	50	10월		63.1.1이후 출생	추천-서류-필기(영어 상식 논술)-면접 신	60만원 600%(지급액)	(042) 254-8641
대전피혁공업(주)	미정	수시	화학학과 경영학과		서류-면접	50만원 580%(기본급)	(042) 525-1771
보 해 양 조	32	12월	관리:경상계열 기술:전기 냉동	63.12.1이후 출생	면접	50만원 500%(지급액)	(0631) 43-3141
서 흥 산 업	미정	수시	화공계열	만 35세미만	서류-면접	45만원 420%(기본급)	(0431) 4-5149
무 동 일 보 사	미정	10월	전학과	63.1.1이후 출생	필기(국어 영어 논문 상 식)-면접	63만5천원 600%(기본급)	(062) 527-1112
광 주 일 보 사	10	11월	전학과	63.1.1이후 출생	서류-필기(국어 영어 논 문 상식)-면접	62만원 640%(기본급)	(062) 222-8111
호 남 제 분	미정	수시	기계학 농학 관련학과		서류-면접(개별면접)	51만원 400%(지급액)	(0631) 44-4101

자료제공:한국 대학 신보

POSCO

POSCO

新 入 社 員 募 集

浦項製鐵은 다음세대의 幸福과 다음世紀의 繁榮을 約束하는 企業입니다.
浦項製鐵의 無限한 可能性과 함께 成長할 人材를 널리 찾습니다.

1. 募集分野 및 應試資格

募集分野	人員	應試資格
技 術 系	250名	• '64. 1. 1이후 출생자 단 碩士는 '62. 1. 1이후 출생자 • 4년제 正規大學(院)募集分野 該當學科 또는 關聯學科 卒業者 및 '92. 2월 卒業豫定者 • 兵役畢 또는 免除者 ※ 語學專攻者는 事務系分野 應試可能
事務系	150名	經營學, 經濟學, 貿易學, 法學, 行政學

2. 銓衡方法

- 1次銓衡: 筆記試驗(英語, 專攻)
- 2次銓衡: 面接, 身體檢査(1次合格者에 限함)

3. 1次銓衡(筆記試驗)日時 및 場所

- 日時: '91. 11. 3 (日), 午前 9時
- 場所: 弘益大學校(서울시 마포구 상수동 소재)

4. 提出書類

- 入社志願書(當社 所定樣式).....1部

5. 志願書交付 및 接受處

交 付 處	接 受 處
• 各大學 學生處 또는 就業輔導室 • 서울: 서울事務所(중구 을지로1가 금세기빌딩, 서울시청 좌측 소재) • 포항: 本社 1層 案内室 • 광양: 光陽製鐵所 正門案内室	(790-785) 경북 포항시 괴동동 1번지 浦項綜合製鐵(株) 人力管理部 人力課

6. 接受期間 및 接受方法

- 接受期間: '91. 10. 10(木)~10. 23(水)
- 接受方法: 郵便接受

7. 其他事項

- 國家報勲對象者는 關係法令에 의거 優待함
(該當者는 所定の 證明書を 願書接受時 提出하여야 함)
- 碩士學位者는 該當 經歷認定함
- 軍 服務중인 者는 '91. 12. 31 以前 轉役者에 限하여 志願可能함
- 書類提出은 郵便으로 하되 마감일 到着分에 限함
- 其他 詳細한 事項은 接受處로 問接바람
(電話: 0562-70-0693~0696)



浦項綜合製鐵株式會社

차기 자치기구장 선거일 확정 입후보 희망자 28일까지 등록 마쳐야 교육부 각 대학에 “비운동권 당선 유도” 지침 시달

'92학년도 각 학생자치기구장 선출에 따른 선거관리시행 세칙 제3장8조에 의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상현)가 구성됨에 따라 학내에 본격적인 선거 분위기로 접어들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오는 10월24일부터 28일까지 후보등록서 배우와 등록마감을 끝내고 11월6일부터 각 단과대학의 선거를 시작으로 11월19일 총대의원회 선거를 끝으로 모든 선거일을 마칠 예정이다. 각 학생자치기구의 선거일정은 표와 같다.

특히, 11월11일과 13일 두 차례에 걸쳐 유세를 갖고, 14일 선거를 하게되는 총학생회의 경우는 최근 교육부가 각 대학 학장에 시달한 지침에 따라 후보경합에 따른 사람들의 귀추가 모아지고 있다.

교육부가 다가오는 대학의 학생회장 선거를 앞두고 비운동권 후보를 내세우기 위한 방안의 지침을 각 대학에 시달했는데, “건전한 학생회”의 구성을 위해 성직도 일정 수준을 넘어서고 내재의 힘이 없는 입후보를 제도적으로

유도하라는 지시가 바로 그것이다.

이는 이른바 6·3 사태로 일컬어지는 지난 '외대정원식 총리사태' 이후에 헌정권의 본질적이고 노골화된 학원탄압의 한 단면으로 건전한 학원활동을 규제하고 통제하려는 의도로써 이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다가오는 차기 학생회 선거에서는 이러한 제정을 인식하고 중·선·위를 중심으로 공정한 선거활동을 통해 올바른 일꾼을 선택해야 한다.

한편, 이에 앞서 지난 10월2일에는 2동중강당에서 총대의원회주최 '제2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열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구성과 91상반기 학생회 감사보고가 있었다.

〈표〉 자치기구 선거일정 및 중앙선거관리 위원

기구명	등록서배부	마감	유세일	투표일
총학생회	10월24일 ~ 28일	10월28일 21:00	11월 11, 13일	11월14일
총여학생회	10월24일 ~ 28일	10월28일	11월 7, 11일	11월12일
총대의원회	10월24일 ~ 28일	10월28일	11월19일	11월19일
동아리연합회	10월24일 ~ 28일	10월28일	11월 8일	11월 8일
각단과대학	10월24일 ~ 28일	10월28일	11월 4일	11월 6일

대 학	성 명	학 과	학 년
인 문	김성훈	미 술 학 과	3
	김미숙	사 회 학 과	3
경 상	김의철	무 역 학 과	3
법 정	정광만	경 영 학 과	2
	이상범	행 정 학 과	3
사 범	김현문	법 학 과	2
	현정옥	수 학 교 육 과	3
	홍은희	국 어 교 육 과	3
농 과	문광호	농 업 경 제 학 과	4
	허성환	원 예 학 과	2
공 과	최수진	화 학 공 학 과	3
	김정철	통 신 공 학 과	2
자 연 과 학	양명심	가 정 관 리 학 과	3
	김충훈	생 물 학 과	3
해 양 과 학	이정훈	중 식 학 과	3
	이영애	해양환경공학과	2
야간강좌부	허윤석	행 정 학 과	3
	안성진	경 영 학 과	2

대자보 공방전 일단락

‘새물결위’ 공개토론회 불참으로

지난 10월7일 학내에는 ‘새물결추진위원회’의 “우리를 열망하는 일들”이란 대자보와 유인물이 나돌아 그에 대한 대자보공방전으로 한동안 관심이 집중됐다.

‘새물결추진위원회’란 명의로 된 이 대자보에는 “총학생회장이 경찰 비슷한 사람으로부터 1백50만원의 부패금전 수수를 받고 교수를 하지 않았다” “NL과 PD의 싸움” “현집행부의 특별법 부패에 관하여” “동아리방학” “과거방학” “87학년도 무관련회를 동아리에서 강제 제정을 시킨 이유” 등이 실려 있다.

이에대하여 해양학과대학생회, 해양환경공학과 환경연구회 “고운우리살터”에서 반박대자보가 나오고 “고운우리살터”에서는 “새물결추진위원회”에 “대자보내용에 관한 진위여부—△해대분과방에서 있었던 일”에 대한 진위여부 △총학생회장에 대한 인식공격해명 “새물결추진위원회”에 대하여 설명필요—△목적 △대표 △조직체계 △구성원에 대하여한 글자도 공개면담을 요청했다.

11일 오후 2시 공개면담장소인 해양환경공학과 분과방에는 해양환경공학과 학생회장(조재권 3) “고운우리살터” 분과장(김기현 3) 위성곤총

수도 있다”고 전제, “그들이 학회를 비난하기 위해서 이러한 방법을 택했지만 그것에 동의할 학우는 없다고 본다”라고 피력했다.

이번 대자보에 거론됐던 “고운우리살터”의 김기현분과장도 “학생회선거시기를 겨냥하여 현학생회를 불신시키려는 대자보와 유인물”이라며 “92·93년의 대통령 선거와 총선을 바라보며 학생회를 악화시키려는 정부의 의도에 공조하는 ‘새물결추진위원회’는 학생회와 학우들을 분리시키려는 유령단체가 확실하다”고 확인했다.

공개면담이 무산되므로 대자보의 내용이 근거없는 얘기고 자수적인 학생회 활동을 저지하려는 술책이라고 결말이 났지만 한쪽에선 그럴수도 있겠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문학백일장서 43명 입상

시부문 문누미양 최우수상 받아

국어교육과 학생회(회장 홍은희3) 주최로 지난 10월9일 있었던 제5백45주년 한글날 맞이 ‘제27회 전도 중·고등학생문학백일장’에서 문누미(신성여고1)양이 고등부 시부문에서 ‘창에 관한 습작’으로 최우수상을 받는 등 총 43명의 학생들이 시와 산문부문에 입상했다.

도내 33개 중·고등학교에서 5백42명이 참가해 기량을 겨루었던 이번 백일장에서의

입상자와 입상내역은 다음과 같다.

△은메달: 다이빙(플랫폼)=라숙경(체육2), △동메달: 다이빙(스프링 보드)=라숙경, 4m 허들=임관철(체육2), 1천2백m 계주=임관철.

△중등부
△시부문: 최우수=해당자 없음, 우수=김진은(동여중2) 정선희(애월중3), 가작=문은경(동여중2), 고대권(귀일중1), 강재선(위미중2), 입선=부소정(신성여중3), 김성일(제주중3), 강은정(성산중2), 박정수(세화중2), 김홍철(제일중2) △산문부문: 최우수=해당자 없음, 우수=오승석(위미중1), 남수정

(세화중1), 양수정(제주여중2), 가작=문정은(사대부중1), 윤예연(신성여중2), 정재현(한림중1), 입선=강희영(제주여중1), 양희선(제주여중1), 고혜연(신성여중3), 오지훈(한림중1), 양은주(제주여중2).

△고등부
△제429호 (10월1일) 자 4면 “ILO 가입과 우리의 노동현실” 기사중 “ICFTU”로 바로 잡습니다.

은1·동3개 따내 제72회 전국체전서

제72회 전국체전서

지난 10월7일부터 10월13일까지 7일간 전주에서 열린 제72회 전국체전에서 우리 학교 학생들이 제주도대표로 육상, 축구 등 7개종목에 출전해 육상과 다이빙에서 은메달 1개, 동메달 3개를 따냈다.

입상자와 입상내역은 다음과 같다.

△은메달: 다이빙(플랫폼)=라숙경(체육2), △동메달: 다이빙(스프링 보드)=라숙경, 4m 허들=임관철(체육2), 1천2백m 계주=임관철.

기획상품 판매 재개

구내배점서

지난해 말부터 여러가지 문제로 판매가 일시 중단됐던 우리학교 기획상품이 10월4일부터 판매가 재개되고 있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물품은 보고서용지 2종, 원고지

△시부문: 최우수=문누미(신성여고1), 우수=홍희연(“”), 가작=김희정(“”), 최은희(“”), 고은숙(제주여고2), 입선=오금희(남녕고1), 김장언(오현고1), 장미순(제주여상3), 류태호(오성고), 김은아(남녕고2), 강은아(제주여고2) △산문부문: 최우수=해당자 없음, 우수=양동혁(서귀고2), 김진희(중앙고2), 가작=이세연(오현고2), 허소원(중앙고2), 입선=정은희(제주여상3), 부현경(남녕고1), 오우현(중문상고2), 남진(신성여고2), 김지희(신성여고2), 홍연주(제주여고1), 현해경(신성여고1).

△지도교사상 김인경(제주동여중 교사), 강대성(신성여고 교사).

“한편 입상자에 대한 시상식은 지난 10월19일 12시 김형욱총장을 비롯해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본관2층 대회의실에서 있었다.

동아리방 가꾸기 대회
환경미화차원서

동아리연합회(회장 강창권)가 주최하는 제72회 전국체전 제72회 전국체전에 참가한 동아리방 가꾸기 대회는 지난 10월19일 12시 김형욱총장을 비롯해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본관2층 대회의실에서 있었다.

은1·동3개 따내 제72회 전국체전서

제72회 전국체전서

지난 10월7일부터 10월13일까지 7일간 전주에서 열린 제72회 전국체전에서 우리 학교 학생들이 제주도대표로 육상, 축구 등 7개종목에 출전해 육상과 다이빙에서 은메달 1개, 동메달 3개를 따냈다.

입상자와 입상내역은 다음과 같다.

△은메달: 다이빙(플랫폼)=라숙경(체육2), △동메달: 다이빙(스프링 보드)=라숙경, 4m 허들=임관철(체육2), 1천2백m 계주=임관철.

은1·동3개 따내 제72회 전국체전서

제72회 전국체전서

지난해 말부터 여러가지 문제로 판매가 일시 중단됐던 우리학교 기획상품이 10월4일부터 판매가 재개되고 있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물품은 보고서용지 2종, 원고지

△시부문: 최우수=문누미(신성여고1), 우수=홍희연(“”), 가작=김희정(“”), 최은희(“”), 고은숙(제주여고2), 입선=오금희(남녕고1), 김장언(오현고1), 장미순(제주여상3), 류태호(오성고), 김은아(남녕고2), 강은아(제주여고2) △산문부문: 최우수=해당자 없음, 우수=양동혁(서귀고2), 김진희(중앙고2), 가작=이세연(오현고2), 허소원(중앙고2), 입선=정은희(제주여상3), 부현경(남녕고1), 오우현(중문상고2), 남진(신성여고2), 김지희(신성여고2), 홍연주(제주여고1), 현해경(신성여고1).

△지도교사상 김인경(제주동여중 교사), 강대성(신성여고 교사).

“한편 입상자에 대한 시상식은 지난 10월19일 12시 김형욱총장을 비롯해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본관2층 대회의실에서 있었다.

동아리방 가꾸기 대회
환경미화차원서

동아리연합회(회장 강창권)가 주최하는 제72회 전국체전 제72회 전국체전에 참가한 동아리방 가꾸기 대회는 지난 10월19일 12시 김형욱총장을 비롯해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본관2층 대회의실에서 있었다.

동아리방 가꾸기 대회
환경미화차원서

동아리연합회(회장 강창권)가 주최하는 제72회 전국체전 제72회 전국체전에 참가한 동아리방 가꾸기 대회는 지난 10월19일 12시 김형욱총장을 비롯해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본관2층 대회의실에서 있었다.

동아리방 가꾸기 대회
환경미화차원서

동아리연합회(회장 강창권)가 주최하는 제72회 전국체전 제72회 전국체전에 참가한 동아리방 가꾸기 대회는 지난 10월19일 12시 김형욱총장을 비롯해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본관2층 대회의실에서 있었다.

동아리방 가꾸기 대회
환경미화차원서

동아리연합회(회장 강창권)가 주최하는 제72회 전국체전 제72회 전국체전에 참가한 동아리방 가꾸기 대회는 지난 10월19일 12시 김형욱총장을 비롯해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본관2층 대회의실에서 있었다.

동아리방 가꾸기 대회
환경미화차원서

동아리연합회(회장 강창권)가 주최하는 제72회 전국체전 제72회 전국체전에 참가한 동아리방 가꾸기 대회는 지난 10월19일 12시 김형욱총장을 비롯해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본관2층 대회의실에서 있었다.

동아리방 가꾸기 대회
환경미화차원서

동아리연합회(회장 강창권)가 주최하는 제72회 전국체전 제72회 전국체전에 참가한 동아리방 가꾸기 대회는 지난 10월19일 12시 김형욱총장을 비롯해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본관2층 대회의실에서 있었다.

동아리방 가꾸기 대회
환경미화차원서

동아리연합회(회장 강창권)가 주최하는 제72회 전국체전 제72회 전국체전에 참가한 동아리방 가꾸기 대회는 지난 10월19일 12시 김형욱총장을 비롯해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본관2층 대회의실에서 있었다.

동아리방 가꾸기 대회
환경미화차원서

동아리연합회(회장 강창권)가 주최하는 제72회 전국체전 제72회 전국체전에 참가한 동아리방 가꾸기 대회는 지난 10월19일 12시 김형욱총장을 비롯해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본관2층 대회의실에서 있었다.

동아리방 가꾸기 대회
환경미화차원서

동아리연합회(회장 강창권)가 주최하는 제72회 전국체전 제72회 전국체전에 참가한 동아리방 가꾸기 대회는 지난 10월19일 12시 김형욱총장을 비롯해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본관2층 대회의실에서 있었다.

동아리방 가꾸기 대회
환경미화차원서

동아리연합회(회장 강창권)가 주최하는 제72회 전국체전 제72회 전국체전에 참가한 동아리방 가꾸기 대회는 지난 10월19일 12시 김형욱총장을 비롯해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본관2층 대회의실에서 있었다.

동아리방 가꾸기 대회
환경미화차원서

동아리연합회(회장 강창권)가 주최하는 제72회 전국체전 제72회 전국체전에 참가한 동아리방 가꾸기 대회는 지난 10월19일 12시 김형욱총장을 비롯해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본관2층 대회의실에서 있었다.

동아리방 가꾸기 대회
환경미화차원서

교수동정

△김형욱총장=대학교육협의회에서 주관하는 대학종합평가위원회 자격으로 지난 10월7일부터 10월16일까지 한국교육대, 충남대, 강남대, 대한체육과학대, 가톨릭대, 연세대 등 6개 대학 현지방문.

△한상진(법학과)부교수=지난 10월11일 제주도지방경찰청으로부터 경찰청 행정심판위원회(총9)위원으로 위촉받음.

△백지훈(원예학과)교수=도교육위원회 의장 자격으로 지난10월5일부터 10월8일까지 제72회 전국체전에 참석.

△조남기(농학과)교수=김한림(농학과)교수의 후임으로 농과대학 부속농장장에 임명(10월4일자).

△김한림(농학과)교수=문두길(원예학과)교수의 후임으로 아열대농업연구소장에 임명(10월4일자).

△허철수(교직과)부교수=지난 10월11일 오전10시 제주시교육청대강당에서 열린 UN아동기금(UNICEF)과 한국어린이재단 제주지부 주최 ‘1991년 제주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세미나’에서 “아동 및 청소년문제 실태와 해결방안”에 대한 주제발표.

△김갑순(가정관리학과)교수=UN아동기금(UNICEF)과 한국어린이재단 제주지부 주최 지난 10월11일 오전10시 제주시교육청대강당에서 열린 1991년 제주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세미나에서 “아동복지 방향과 대책”에 대해 주제발표.

△김홍식(국어국문학과)교수=지난 10월12일 오후3시 한국방송통신대학 제주지역학관에서 열린 제주도 방언연구회(회장 현영호 초대 총장)주최 제2회 연구발표회에서 “韓日 搬遷의 一比較”라는 주제발표.

△강영봉(국어국문학과)교수=지난 10월12일 오후3시 한국방송통신대학 제주지역학관에서 열린 제주도 방언연구회 주최 제2회 연구발표회에서 “제주도방언과 몽골어와의 비교”에 대한 주제발표.

△김명호(미술학과)부교수=지난 10월17일부터 21일까지 세종미술관에서 여덟번째 개인전을 갖고 20여점의 작품을 선보임.

△고충석(행정학과)부교수=10월19일 오후6시 서귀포 시민회관에서 열린 한겨레가 주최한 창립1주년기념 강연 및 정태훈노래공연에서 “제주도개발의 올바른 방향—문제의 제기과 대안”에 대해 강연.

△김정호(행정학과)부교수=10월19일 오후6시 서귀포 시민회관에서 열린 한겨레가 주최한 창립1주년기념 강연 및 정태훈노래공연에서 “제주도개발의 올바른 방향—문제의 제기과 대안”에 대해 강연.

△김정호(행정학과)부교수=10월19일 오후6시 서귀포 시민회관에서 열린 한겨레가 주최한 창립1주년기념 강연 및 정태훈노래공연에서 “제주도개발의 올바른 방향—문제의 제기과 대안”에 대해 강연.

△김정호(행정학과)부교수=10월19일 오후6시 서귀포 시민회관에서 열린 한겨레가 주최한 창립1주년기념 강연 및 정태훈노래공연에서 “제주도개발의 올바른 방향—문제의 제기과 대안”에 대해 강연.

△김정호(행정학과)부교수=10월19일 오후6시 서귀포 시민회관에서 열린 한겨레가 주최한 창립1주년기념 강연 및 정태훈노래공연에서 “제주도개발의 올바른 방향—문제의 제기과 대안”에 대해 강연.

△김정호(행정학과)부교수=10월19일 오후6시 서귀포 시민회관에서 열린 한겨레가 주최한 창립1주년기념 강연 및 정태훈노래공연에서 “제주도개발의 올바른 방향—문제의 제기과 대안”에 대해 강연.

△김정호(행정학과)부교수=10월19일 오후6시 서귀포 시민회관에서 열린 한겨레가 주최한 창립1주년기념 강연 및 정태훈노래공연에서 “제주도개발의 올바른 방향—문제의 제기과 대안”에 대해 강연.

△김정호(행정학과)부교수=10월19일 오후6시 서귀포 시민회관에서 열린 한겨레가 주최한 창립1주년기념 강연 및 정태훈노래공연에서 “제주도개발의 올바른 방향—문제의 제기과 대안”에 대해 강연.

△김정호(행정학과)부교수=10월19일 오후6시 서귀포 시민회관에서 열린 한겨레가 주최한 창립1주년기념 강연 및 정태훈노래공연에서 “제주도개발의 올바른 방향—문제의 제기과 대안”에 대해 강연.

△김정호(행정학과)부교수=10월19일 오후6시 서귀포 시민회관에서 열린 한겨레가 주최한 창립1주년기념 강연 및 정태훈노래공연에서 “제주도개발의 올바른 방향—문제의 제기과 대안”에 대해 강연.

△김정호(행정학과)부교수=10월19일 오후6시 서귀포 시민회관에서 열린 한겨레가 주최한 창립1주년기념 강연 및 정태훈노래공연에서 “제주도개발의 올바른 방향—문제의 제기과 대안”에 대해 강연.

△김정호(행정학과)부교수=10월19일 오후6시 서귀포 시민회관에서 열린 한겨레가 주최한 창립1주년기념 강연 및 정태훈노래공연에서 “제주도개발의 올바른 방향—문제의 제기과 대안”에 대해 강연.

△김정호(행정학과)부교수=10월19일 오후6시 서귀포 시민회관에서 열린 한겨레가 주최한 창립1주년기념 강연 및 정태훈노래공연에서 “제주도개발의 올바른 방향—문제의 제기과 대안”에 대해 강연.

△김정호(행정학과)부교수=10월19일 오후6시 서귀포 시민회관에서 열린 한겨레가 주최한 창립1주년기념 강연 및 정태훈노래공연에서 “제주도개발의 올바른 방향—문제의 제기과 대안”에 대해 강연.



교수동정

△김형욱총장=대학교육협의회에서 주관하는 대학종합평가위원회 자격으로 지난 10월7일부터 10월16일까지 한국교육대, 충남대, 강남대, 대한체육과학대, 가톨릭대, 연세대 등 6개 대학 현지방문.

△한상진(법학과)부교수=지난 10월11일 제주도지방경찰청으로부터 경찰청 행정심판위원회(총9)위원으로 위촉받음.

△백지훈(원예학과)교수=도교육위원회 의장 자격으로 지난10월5일부터 10월8일까지 제72회 전국체전에 참석.

△조남기(농학과)교수=김한림(농학과)교수의 후임으로 농과대학 부속농장장에 임명(10월4일자).

△김한림(농학과)교수=문두길(원예학과)교수의 후임으로 아열대농업연구소장에 임명(10월4일자).

△허철수(교직과)부교수=지난 10월11일 오전10시 제주시교육청대강당에서 열린 UN아동기금(UNICEF)과 한국어린이재단 제주지부 주최 ‘1991년 제주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세미나’에서 “아동 및 청소년문제 실태와 해결방안”에 대한 주제발표.

△김갑순(가정관리학과)교수=UN아동기금(UNICEF)과 한국어린이재단 제주지부 주최 지난 10월11일 오전10시 제주시교육청대강당에서 열린 1991년 제주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세미나에서 “아동복지 방향과 대책”에 대해 주제발표.

△김홍식(국어국문학과)교수=지난 10월12일 오후3시 한국방송통신대학 제주지역학관에서 열린 제주도 방언연구회(회장 현영호 초대 총장)주최 제2회 연구발표회에서 “韓日 搬遷의 一比較”라는 주제발표.

△강영봉(국어국문학과)교수=지난 10월12일 오후3시 한국방송통신대학 제주지역학관에서 열린 제주도 방언연구회 주최 제2회 연구발표회에서 “제주도방언과 몽골어와의 비교”에 대한 주제발표.

△김명호(미술학과)부교수=지난 10월17일부터 21일까지 세종미술관에서 여덟번째 개인전을 갖고 20여점의 작품을 선보임.

△고충석(행정학과)부교수=10월19일 오후6시 서귀포 시민회관에서 열린 한겨레가 주최한 창립1주년기념 강연 및 정태훈노래공연에서 “제주도개발의 올바른 방향—문제의 제기과 대안”에 대해 강연.

△김정호(행정학과)부교수=10월19일 오후6시 서귀포 시민회관에서 열린 한겨레가 주최한 창립1주년기념 강연 및 정태훈노래공연에서 “제주도개발의 올바른 방향—문제의 제기과 대안”에 대해 강연.

△김정호(행정학과)부교수=10월19일 오후6시 서귀포 시민회관에서 열린 한겨레가 주최한 창립1주년기념 강연 및 정태훈노래공연에서 “제주도개발의 올바른 방향—문제의 제기과 대안”에 대해 강연.

△김정호(행정학과)부교수=10월19일 오후6시 서귀포 시민회관에서 열린 한겨레가 주최한 창립1주년기념 강연 및 정태훈노래공연에서 “제주도개발의 올바른 방향—문제의 제기과 대안”에 대해 강연.

△김정호(행정학과)부교수=10월19일 오후6시 서귀포 시민회관에서 열린 한겨레가 주최한 창립1주년기념 강연 및 정태훈노래공연에서 “제주도개발의 올바른 방향—문제의 제기과 대안”에 대해 강연.

△김정호(행정학과)부교수=10월19일 오후6시 서귀포 시민회관에서 열린 한겨레가 주최한 창립1주년기념 강연 및 정태훈노래공연에서 “제주도개발의 올바른 방향—문제의 제기과 대안”에 대해 강연.

△김정호(행정학과)부교수=10월19일 오후6시 서귀포 시민회관에서 열린 한겨레가 주최한 창립1주년기념 강연 및 정태훈노래공연에서 “제주도개발의 올바른 방향—문제의 제기과 대안”에 대해 강연.

△김정호(행정학과)부교수=10월19일 오후6시 서귀포 시민회관에서 열린 한겨레가 주최한 창립1주년기념 강연 및 정태훈노래공연에서 “제주도개발의 올바른 방향—문제의 제기과 대안”에 대해 강연.

△김정호(행정학과)부교수=10월19일 오후6시 서귀포 시민회관에서 열린 한겨레가 주최한 창립1주년기념 강연 및 정태훈노래공연에서 “제주도개발의 올바른 방향—문제의 제기과 대안”에 대해 강연.

△김정호(행정학과)부교수=10월19일 오후6시 서귀포 시민회관에서 열린 한겨레가 주최한 창립1주년기념 강연 및 정태훈노래공연에서 “제주도개발의 올바른 방향—문제의 제기과 대안”에 대해 강연.

△김정호(행정학과)부교수=10월19일 오후6시 서귀포 시민회관에서 열린 한겨레가 주최한 창립1주년기념 강연 및 정태훈노래공연에서 “제주도개발의 올바른 방향—문제의 제기과 대안”에 대해 강연.

△김정호(행정학과)부교수=10월19일 오후6시 서귀포 시민

자율실천은 주변에 대한 관심에서 자기학교서 일어나는 일조차 몰라서야

맑은 햇살 아래 그늘도 불어드는 쌀쌀한 바람에 더 이상 식을 것 같지 않은 여름의 피아노도 서서히 접혀 가는 듯 하다.

대학이라는 새로운 사회에 들어서서 벌써 겨울·봄·여름·가을의 계절 변화를 느껴본다.

넓고 어수선하게만 느껴지던 본관, 그리고 아무리 가보아도 서먹하기만 했던 단대, 읽는 것에만 인색하기 그지없었던 벽에 붙은 대자보들. 그러나 이제는 어느 정도 친근하게 내 눈에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다. 익숙해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것은 내가 그 만큼 관심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라.

어느 날인가 교복을 입은 중·고등학생들이 피아나 밑에 눈에 띄는 낱이 있었다. 같이 가던 친구는 연신 "아! 오늘 무슨 일 있나?" 하며 힐끗힐끗 거리고 나는 그저 그런가 보다 하고 걸어 가는데 이 친구는 그 사이에 중학생을 잡고 물어 보고 오는 것이었다.

"오늘 산문 대회였다."

"그러나?"

잠시 후 친구가 말했다.

"어느 때는 내가, 내가 다 아는 학교 바로 옆에서 일어나는 일조차도 알지 못한다네 참 한심해 보여."

...아! 그거였구나. 그래 나는 바로 한심하게 살고 있었구나.

그렇다. 어느 한 집단이건 사회이건 간에 자신이 속한 곳에서 익숙해지고 친근해진다는 건 바로 자신이 그 속의 구성원으로서 관심을 갖고 애정을 담아내는 것일 것이다. 대학이라는 사회 역시도 우리 학우들의 관심을 곳곳에서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지성과 자율—흔히 대학 사회를 일컬을 때 자주 쓰이는—의 실천은 바로 그런 것이 아닐까.

대학의 자율적인 분위기에 힘써서 모든 것에 식상해 지자는 말이 아니다.

자율적인 분위기에서 그것의 주인이 되는 자기 자신을, 바로 우리 모두를 찾아 내자는 말이다.

어떤 형태의 것이든 간에 우리는 너무도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관심 갖는 것조차도... 본관 앞의 가로수들이 붉게 물든지도 오래고 동아리 연합회에서 마련해준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버려놓지도 오래다.

우리 주변의 것에서 같이 있음을 느껴 보도록 하자. 약간의 관심들.

(성기남 국어국문학과)

단적인 예를 하나 들자면 학교기숙사와 도서관을 통하는 지름길을 가다보면 언제부터인가 누가 먼저 버리기 시작했는지 종이컵과 각종 쓰레기가 수북히 쌓여있다. 마치 그곳에 휴지를 버리는 것이 당연하다는 듯이 우리 학교를 우리 스스로가 쓰레기장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

아닌 스스로가 학교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깨끗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길가에 버려진 쓰레기 하나를 줍지는 못할망정 우리 자신이 휴지를 버려 학교를 더럽힌다면 이 얼마나 우스운 일인가. 기숙사와 도서관 사이의 버려진 종이컵들을 보고 더

욱더 서글퍼지는 것은 이 컵들은 분명히 도서관이나 기숙사에서 나온 것인데 이로써 먼곳까지 와서 버려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도서관 2층과 3층 흡연실 창문밖을 보면 더욱 가관이다. 창문과 창밖엔 담배를 피우고 버린 재와 공

초가 지저분하게 널려있다. 바로 앞에 쓰레기통을 두고서 말이다. 창문밖에 공초를 버리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아라인의 공중도덕과 최소한의 양심마저도 의심스러워지는 순간이다.

(법학과(02년) 임기남)

온 도민이 '투쟁의 한길'로 나서 2차 도민대회... 특별악법 저지의지 확인

10월22일에는 특별법 저지를 위한 제2차 범도민대회가 탑동에서 있었다. 해녀들과 일부 시민들에게 삶의 터전을 잃게 했던 탑동바다 가득 메운 시멘트 위에, 다시는 어느 한쪽에만 이익이 가는 개발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도민들과 청년학생들의 외침이 가득하였다.

제주도의 정태를 격정하여 펼쳐 일어난 각계각층의 대표들을 선두로한, 도민 청년들의, 한성소리는 저녁 8시까지 제주시내를 뜨겁게 울렸다. 탑동매립지에서 문화행사과 본행사까지 '특별악법 제정반대' '특별악법 결사저지'라고 쓰여있는 연등을 들고 탑동에서 중앙로로, 중앙로에서 광양로터리로 평화대행진을 실시하였다.

평소같았으면 참으로 오랜 시간이었다. 그리고 참으로 먼 거리였다. 그러나 전혀 지루했다거나 피곤하거나 하는 잡념은 일체 생기지 않았다.

앞으로 태어날 새생명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특별법 저지투쟁의 한길로 같이 걸어가고 있는 아리따운 아줌마와 젊은 모로지만 진리와 정의를 위해 싸우는 부모님, 어머니, 오빠들을 위로하듯 현수막을 들고 서있는 어린

꼬마들의 천진난만한 눈은 시선을 뜨겁게 하였다.

특별악법을 불태워 놓아놓아 되었던 기구와 특별법은 반드시 저지할 수 있다라는 힘찬 모듬들이 신을, 이기려고 쌓았던 바벨탑의 무모함이 언어를 혼동하게 한 것처럼 민중을 외면하여 계속 쌓아 가려고 하는 특별악법의 탐은 소수재벌들의 자벌로 드러나게 될 것을 인식하게 하였다. (장신숙 사회학과)

더이상 물러설 수 없다

특별법저지 단식투쟁 지지하며

집회가 오랜만에 열린다는 반가운 소식에 식당을 찾아가던 발걸음이 민주당장으로

향해졌다. 이미 집회가 시작되었는지 총학생회장님은 단상에 앉아있었고 사회자의 진행에 따라 성토가 진행되려 하고 있었다. 성토가 끝나고 총학생회장님이 단식투쟁에 들어가며 결의를 다지는 모습이 결연해 보였다.

시합기간이라는 학생신분의 악조건 속에서 총학생회장의 단식은 많은 의미가 담겨 있으리라고 본다.

첫째, 학우들의 투쟁의 분위기를 침체에서 고양으로 이어주는 역할이다. 사실상 단체 측에 이어 시합이라는 것이 분위기를 침체에서 고양시키는(침체시키기에 충분했다고 본다.

둘째, 개별들의 고민이 이제는 잠식될 것들이 아니라 고민의 조직화에 유용하리라고 본다.

셋째, 적들에게는 단식 투쟁이 결코 다가갈 수 있으리라고 본다.

이런 분위기 고양 속에서 우리들은 무엇들을 해야 할 것인가?

개별의 고민을 각 단위에서 묶어 이를 학생회로 결집시켜내어 그 내용들을 범도민회에서 현상화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파소는 침묵하는 대중을 결코 미워하지 않는다. 그리고 침묵하는 대중에게서 위협이나 무서움을 느끼지도 않는다. (김민선 법학과)

사람들

위생원 이광호씨

"학생들이 인사할 때 보람 느껴"

'아침 일찍 일어난 새가 별래를 잡는다'라는 속담이 있다.

이는 지난 4년여동안 우리학교 학생회관과 야외음악당일대를 깨끗이 청소해 주고 있는 위생원 이광호씨(43세)에게 해당되는 말인듯 싶다.

매일 새벽같이 첫차를 타고 아라동 산1번지를 찾아 오는 이씨는 학우들이 1교시강의를 수강하기 위해 부지런히 교문을 들어설 무렵이면 이미 한차례 청소를 끝내고 쓰레기를 가득 실은 경운기를 몰고 쓰레기장을 수거하기 위해 동쪽으로 향한다. 이씨는 이같은 일을 평소 하루에 세번정도 반복한다.

"학생들이 부탄가스를 쓰고 나서 구멍을 뚫고 버려주면 제가 일하는 데 훨씬 수월합니다. 쓰레기를 버리러 가도 부탄가스가 자주 터지기 때문에 한참 동안 신경써서 쓰레기 타는 걸 지켜 봐야만 하죠."

쓰다버린 부탄가스통을 치울 때 제일 조심스러워진다는 이씨는 "그외에도 라면이나 막걸리통을 먹고 그 찌꺼기를 그냥 휴지통이나 화장실에 버리는 바람에 일고 온 옷이 금방

더러워진다"고 일하는 고충을 털어놓기도.

학우들이 대자보나 각종 행사 안내 유인물들을 일단 부착하고 나면 일정한 시기가 지나도 수거하지 않아 그것들을 수거하는 데도 일일이 이씨의 손이 간다. 축전등의 행사를 전후해서는 그런 유인물이나 쓰레기장은 더욱 늘어나 평소보다 두세번 더 쓰레기장을 다녀야 한다.

학생회관의 쓰레기뿐만 아니라 소비조합에서 나오는 쓰레기, 본관식당에서 나오는 설거지 찌꺼기 등도 치워야하기 때문에 혼자 일하기에는 너무 벅다는 생각도 들지만, 그때마다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을 갖고 일을 시작한다고 말한다.

일정한 휴게실이 없어서 학생회관로비 계단옆이 이씨가 애용하는 휴식장소이다. 잠깐동안 휴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때 로비 계단 옆 의자에 앉아서 담배를 피고 싶노라면 학생들이 지나가면서 종종 인사를 해줄 때 가장 일하는 보람을 느낀다.

위생원 이광호씨는 우리가 가장 편하게 여기는 학생회관을 어머니이 안팎을



치우시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깨끗이 치워주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학생회관은 학우들이 가장 많이 드나드는 곳으로서 학우들 스스로가 충분히 깨끗하게 쓸 수 있는데도 '냄새 나는 곳'이나 '지저분한 곳'으로 인식되고 있을 때 부끄러운 일이다. 이를 깨끗이 하는 데는 이광호씨뿐만 아니라 이용자 모두의 주의와 책임이 필요하다. 아울러 학생회관에서 이씨가 보일 때마다 "수고하십니다"라며 인사를 한다면 일하는 이씨는 더욱 하는 일에 보람을 느낄 것이며, 우리 아라 캠퍼스의 분위기도 한결 훈훈해질 것이다.

【愚】

제27회 종교백일장 시부문 최우수작

창에 관한 습작

열리지 않는 창은 창이 없는 것보다 더 슬프다.

나는 하늘로 열린 창이 되고 싶다. 새벽빛 희미한 먼 하늘에서 울려 오는 아침의 서곡을 제일 먼저 만나고, 지붕을 타고 드는 나팔꽃 줄기의 음악에 귀를 기울이고, 햇살 찬란한 오후까지 바람을 호흡하고 싶다.

열린 창을 무의미하게 지나치는 것은 단번에 있는 창보다 더 슬프다.

나는 진심으로 사랑하는 창을 기쁘게 열고 온누리를 맞아들이고 싶다. 창을 열면 나도 그대로 대자연 해질녘 노을도 저녁 어스름도 순수하게 느낄 수 있어 좋다.

느낌도 없이 창을 닫아버리는 것은 열린 창에 눈빛을 반짝이지 않는 것보다 더 슬프다.

나는 소리없이 흘러드는 푸른 달빛의 베일에 나의 하루를 수놓는다. 별은 고스란히 내 창으로 떨어져 내린다. 창가에서, 잃어버린 동화나, 옛 전설이나, 미래나, 삶을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 달콤한 꿈보다도 행복하다. 홀로 새벽별이 질 때까지 앉아 있고 싶은 밤도 나와, 내 결의 열린 창에겐 있다.

문누미 신성고 1학년

권하고 싶은 책 — 이종나선

학문탐구묘미 실감있게 서술

책을 읽는 일에 특별한 때가 따로 없었으나 바야흐로 이제 燈火可親의季節이 왔으니 讀書亡半할 수 없다.

내가 소개하고자 하는 책은 지금과는 나이가 다르고 처지도 다른 거의 20년전(대학원 학생시절)에 읽은 책이기에 지금도 여전히 권장할 만한 책인가 확인하기 위하여 원고 청탁을 받고서 다시 읽게 되었는데 결과는 역시 좋은 책이며, 지금도 처음 읽었을 때의 감흥이 변함없이 다시 일어남을 느끼게 되었다. 책에 대한 느낌은 사람마다 다를지언만 공부한다는 면에서는 학생들이나 나나 같기 때문에 한번 권해볼까 한다.

권하는 책은 James D. Watson(Athenum, New York 1968)이 자서전 격으로 쓴 'The Double

Helix'라는 것으로 1973년에 서울대학교 동물학과 교수인 河斗鳳교수께서 '이종나선'(-핵산의 구조를 밝히기까지-)이라고 번역하여 電波科學社에서 現代科學新書시리즈의 8번째로 출판한 문고판(값 2500원, 약 200면)이다. 이책의 내용은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갖 취득한 25세의 존프기(영국인은 미국인을 대부분 존프기로 취급하는 것 같다), 피라미 생물학자가 자기의 부족한 분야(화학 분야)를 더 공부하기 위하여 유럽으로 건너가서 영국 케임브리지대학의 캐번디쉬 연구소(Cavendish Laboratory)에서 DNA라는, 독자들도 대부분 다 아실만한, 유전인자를 구성하는 화학물질의 구조(이 구조가 Double Helix 즉 二重螺旋으로 되어있다.)를 밝혀내는 흥미진진한 학문

의 서부활극이 주된 줄거리이다. 등장하는 인물들은 실제인물들로 많은 사람들이 Nobel상 수상자이고 아직도 생존하는 분들도 많다.

결국 저자는 이 활극에서 세계적으로 유수한 학자들과 겨루어 승리하는 주인공이 되고(1953년), 1962년 이 공로로 다른 두 사람과 함께 Nobel상을 받게 된다. 나는 이 책을 읽는 동안 시간을 다투는(누가 먼저 DNA구조를 밝혀내느냐, 즉 이것은 Nobel상을 누가 타느냐 하는 것과 같은 말이다.) 긴박감을 통하여 나 자신이 그 상황으로 깊숙히 빨려들어감을 느끼게 되고 시종 내 스스로가 현장에서 활약하는 주인공으로 착각하여 절망하기도 하고 가슴이 뛰기도 하였으며 큰 성취의 기쁨을 맛보기도 하였다. 다 읽고 난 후에는 그 착각에

서 깨어났으나 현실의 나로서 깊은 省察의 시간을 가진 바 있었으며 그로하여 나타냈던 나를 반성하고 침체되었던 학문적의 의욕을 다시 들끓 수 있었다.

책의 내용은 읽어보면 될 일이고 또한 읽는 사람 각자가 나름대로 느껴 소감을 얻는 것이 중요하므로 내용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으나, 이 책은 약간의 학구조식과 전문용어가 나오지만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알만한 것들이고 설령 모른다고 하더라도 이 책의 진면목을 이해하는데는 하등의 장애가 되지 못한다고 생각하며 불과 25세의 청년이 20세기의 가장 획기적인 생물학적 위업을 달성하는 과정을 진솔한 마음으로 써 내려간 이 책을 통하여 혹시 학교생활에 정신적인 어려움을 당하거나 공부에 대한 의욕이 저하된 사람이라면 전공분야에 관계없이 새로운 힘을 얻을 것이라고 감히 자신해 보면서 일독을 권하는 바이다.

오덕철 생물학과 교수

꿈이있는도전의세계-휴먼테크

技動說!

지동설은 지구가 태양의 힘에 의해 공전하고 있음을 알려 주었지만, 정작 지구를 움직여온 힘은 바로 '기술의 힘'이었습니다. 산업혁명을 일으키고 식민지를 개척한 영국을 사람들은 '대영제국'이라 불렀고, 짧은 역사에도 풍부한 자원과 기술로 인간을 달에 까지 보낸 미국을 사람들은 '세계의 리더'라고 불렀습니다. 또한 패전의 고통을 딛고 어느덧 미국을 능가하는 기술을 지닌 일본을 흔히 '무서운 일본'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1세기—대서양과 태평양을 건너온 '세계사의 주역' 자리를 이제 우리가 차지해야 할 때입니다. '인간행복을 위한 첨단기술—휴먼테크'의 산실, 삼성전자는 바로 21세기의 주인공이 될 당신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주는 의욕의 현장입니다.

휴먼테크
삼성전자